

2013-PR-24
작은 연구 좋은 서울 06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구조와 생활세계 연구

김봉렬

2013-PR-24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구조와 생활세계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김봉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례

I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1	연구 배경	10
1 2	연구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12
2 1	연구 방법	12
II	이론적 검토	16
III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의 현황	22
1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 배경	22
2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 지역별 특성 : 을지로, 필동, 방산시장	25
2 1	을지로	26
2 2	필동	29
2 3	방산시장	32
3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	34
3 1	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와 함의	34
3 2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점들	36
3 3	개발지구 선정과 관련된 문제들	38
4	인쇄 제조업 공동체 관련 단체	41
4 1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41
4 2	대한인쇄문화협회	41
4 3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	42
4 4	필동 경제인협의회	42

IV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가치와 생활세계	46
1	을지로 인쇄 제조업의 분업체계	46
1 1	기획	47
1 2	출력	52
1 3	인쇄	53
1 4	후가공(제책)	56
2	중구 인쇄제조업의 기술적 가치	58
2 1	단순 수작업	59
2 2	첨단화된 자동기계와 공존하는 반자동 기계와 수동 기계	60
2 3	숙련된 장인적 기술	63
3	중구 인쇄제조업의 문화적 가치	65
3 1	숙련 과정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65
3 2	클럽활동과 소모임 활동 및 자발적 협의회의 구성을 통한 연대 관계 유지	67
3 3	조합 활동을 통한 공동의 규범과 신뢰 형성	69
3 4	인쇄문화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이자 유연한 하청 사슬 체계	71
4	중구 인쇄제조업의 공동체적 성격과 생활세계	72
4 1	가족적 연대 및 형제적 결속을 통한 산업공동체 형성	72
4 2	소사장들의 시설 연합 공동체	73
4 3	도시형 산업으로서 인쇄산업의 생활세계와 문제점들	74
4 4	일탈적인 사회적 자본의 활동 : 나까마	77
4 5	인쇄 산업의 자본화와 하청구조의 악화 : 합판회사	80
V	결론	86
1	연구의 요약	88
2	연구의 시사점	91
2 1	가족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91

2 2	도시형 제조업에 대한 DB 구축사업	91
2 3	사회적 자본의 효율성 제고	92
2 4	주거 환경과 공존 가능한 청정한 인쇄 산업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92
2 5	숙련공과 장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시스템 마련	93
2 6	하청 시슬 체계에 대한 연구와 이에 기반을 둔 산업 클러스터 구상	93
	참고문헌	98

표차례

표 1-1	인터뷰 목록	13
표 3-1	인쇄업체 및 종사자 수	35
표 3-2	맥킨토시 이수자 교육현황	42

그림차례

그림 2-1	조사연구의 분석틀	19
그림 3-1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 지역별 특성	26
그림 3-2	인현시장 부근의 인쇄골목	28
그림 3-3	현대화된 시설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스크린 인쇄를 하고 있는 필동 작업장	30
그림 3-4	방산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박스 업체	32
그림 3-5	방산시장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 작업장	33
그림 3-6	필동 경제인협의회 비상대책회의	40
그림 3-7	필동 경제인협의회의 자정 노력 캠페인	43
그림 4-1	인쇄공정별 작업흐름도	47
그림 4-2	을지로의 기획 업체 사무실	48
그림 4-3	출력실 전경	53
그림 4-4	인쇄실 전경	55
그림 4-5	제본소 전경	57
그림 4-6	본드를 이용해 간단한 접착 수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	59
그림 4-7	도무송 기계의 변천	61
그림 4-8	합지 가게와 도무송 가게가 한 작업장에서 임대료를 분담하는 시설 연합	62
그림 4-9	스티커 목형 제작 작업	64

|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방법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흔히 알고 있는 ‘을지로(혹은 충무로) 인쇄 골목’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도시형 산업지역이다. 이 지역을 ‘인쇄 골목’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의 골목골목에는 많은 인쇄소가 몰려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골목골목에는 인쇄업체들뿐만 아니라 광고, 디자인, 종이 등 관련 업체들이 인쇄소만큼이나 많이 몰려 있다.

서울시는 2011년 10월 앞으로 육성해야 할 4대 도시형 제조업으로 “인쇄업,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등을 선정하면서, 중구 을지로를 따라 밀집해 있는 인쇄 제조업 지역을 포함시켰다. 이후 서울시는 2012년 5월 “고용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을지로 인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서울시의 관심은 영·미식 자본주의의 쇠퇴 이유가 제조업의 쇠퇴와 그로 인한 중산층의 쇠퇴로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나라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 또한 제조업의 활성화와 재투자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고, 산업·노동에 관한 많은 연구 또한 대량생산체제보다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경제적 트렌드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 트렌드의 변화 앞에서, 국내의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에 대한 연구 조사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형 제조업 활성화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현재 을지로와 충무로를 따라 필동, 방산동 일대에 집적해 있는 인쇄 골목들은 중첩된 개발 의지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몸살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형 제조업으로 선정된 인쇄 제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지연되고 있으며, 오히려 재개발 의지들이 충돌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구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지역에 배태되어 있는 기술적·문화적·공동체적 가치를 알아보고 생활세계를 조명하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중구 을지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인쇄 제조업 집적 지역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방산동의 방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 (2) 인현시장과 중구청을 사이에 두고 형성되어 있는 지역,
- (3) 충무로 대한극장 뒤편의 서애로와 필동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필동 지역이 그것이다.

이 3개의 지역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인쇄소 및 인쇄와 관련된 업체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 다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인현시장과 중구청을 사이에 두고 을지로와 충무로, 퇴계로 등에 둘러싸여 있는 (2)지역이 가장 크다.

이 연구는 먼저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형성 배경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설명한 3개의 집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는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분업체계와 생활세계를 조사하고, 인쇄 제조업 집적지에 배태된 기술적·문화적·공동체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목적을 통해 이 연구는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지의 구조와 내

부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업 공동체 내부의 문화적이며 경제적인 질서와 공동체적인 규범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주요한 방법론으로 일상생활 연구에 적합한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한다. 질적연구방법은 현지조사와 문화기술지를 위해 현재 사회 과학방법론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 가운데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활용한다. 질적방법론에서 ‘참여관찰’의 효용성은 먼저 “총체적 시각으로 다양한 자료가 획득 가능”하다는 점이며 “제도와 조직이 어떻게 작동되는가”¹의 여부를 기술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적절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질적방법론의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은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작업장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작업장의 기술적 환경 변화를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종사자들의 ‘생애사’에 접근하여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지에서 배태된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체험들을 조사 연구한다.

주요한 인터뷰 내용들은 을지로 인쇄 제조업에 입문한 계기, 기술 숙련과 창업의 과정, 을지로에 인쇄 제조업이 집적된 배경, 기술 환경의 변화들, 을지로 인쇄 제조업의 위상, 종사자들 간의 문화적·경제적 질서와 규범 등이다.

이 연구를 위한 종사자 인터뷰 목록은 인쇄 제조업의 주요한 공정에 준한다. 인쇄 제조업은 크게 기획, 출력, 인쇄, 후가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¹ 윤택립, 2005,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55쪽, 아르케

공정별로 종사자들을 물색하였으며, 이외 인쇄산업의 현황, 특성,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사자들을 소개받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을 한 작업장과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1 인터뷰 목록

인터뷰 기간	2013년 6월~8월					
인터뷰 형식	작업장 방문 현장 인터뷰 및 심층 인터뷰					
인터뷰 대상	업체	공정	경력	품목	직원	인터뷰 형식
사례 A	○○문화사	인쇄/ 후기공	30년	인쇄/제본/톰슨/ 푸라톤	영세 자영업	심층 인터뷰
사례 B	○○특수인쇄	후기공	30년	금박/실크인쇄/ 톰슨/라미네이팅	23명	심층 인터뷰
사례 C	○○레이저 목형	스티카 목형 제작	36년	목(금)형	2명(아들과 딸이 함께 함)	작업장 인터뷰
사례 D	○○인쇄	후기공		미싱/오시/ 금·은박/넘버링	하청 소사장	작업장 인터뷰
사례 E	○○후기공 (여성 사장님)	후기공	20년	싸바리	하청 소사장	작업장 인터뷰
사례 F	○○기계특수연 마	인쇄 관련업	35년	재단용 칼갈이	자영업	작업장 인터뷰
사례 G	○○합지	후기공	37년	합지	하청 소사장	작업장 인터뷰
사례 H	○○라미네이팅	후기공	30년	코팅	4명	심층 인터뷰
사례 I	○○제본	후기공	37년	무선제본	25명	심층 인터뷰
사례 J	○○당	마스터 인쇄	20년	마스터인쇄/ 디자인/종철제본		심층 인터뷰
사례 K	(주)○○인쇄	디지털 인쇄		디지털인쇄/ 마스터인쇄	디지털 인쇄	심층 인터뷰
사례 L	○○프린팅	특수인쇄	26년	스티카		
사례 M	○○출력	출력	18년	CTP 출력		
사례 N	○○기획	기획	20년	기획 전문		
사례 O	○○접착	후기공		접착 전문		

|| 이론적 검토

II 이론적 검토

서울의 도시형 제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지는 공동사회적 결합과 이익사회적 결합(퇴니스, 1992)이 공존하는 산업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산업 집적지의 변화와 부침, 산업 재구조화, 내부 종사자들의 노동세계와 생활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개념적 자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산업군집 이론들
- 신산업공간이론

원격 통신 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공간적 분산의 가능성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차지역에는 업무상 대면접촉이 요구되는 업종이 집적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업무상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이 상호 교환될 필요성이 있거나, 거래가 신용에 의존하는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며, 거래비용의 축소와 대면접촉 상호작용의 활성화는 관련된 업종들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요인 중 하나임(Paul Knox & Steven Pinch, 2010, p30).

- 산업지구이론

산업지구라는 용어는 원래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에 의해 지방적 생산 방식, 사업 조건, 고용 관행 등에 관한 지식이 비공식적으로 연계된 소기업 위주의 커뮤니티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음(Scott, 1988b : 38~40). 새로운 산업 지구론의 대표적인 논자인 스코트(Scott)는 거래비용의 외부화(externalization transaction cost), 수직적 분리(vertical disintegration)²라는 개념들을 통해 새로운 산업 공간의 출현

² 여기에서 거래비용은 내부 거래비용과 외부 거래비용으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내부 거래비용은 경영 계층을 이용하는 비용이며, 외부 거래비용은 시장 기제를 이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대도시권(metropolis)의 성장 및 재생산 분석에 연관시키고 있음.

피오레와 사벨(Piore & Sabel)은 대량생산체제의 산업사회가 유연적 전문화를 축으로 하는 탈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공동체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논리의 중요성을 역설함(김선배, 1999).

새로운 산업 지구론은 대도시 지역의 제조업 변동을 디자인 집약적 업종과 첨단업종을 둘러싼 소기업의 집적으로 파악하는 시야를 제시하며, 지방 정부가 산업 하부 구조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고 파악함(한상진, 2007, 33~35쪽).

- 산업 재구조화의 개념들

내부에서 경쟁하는 소기업들의 산업재구조화 전략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로는 배글리 등의(Bagguley et al., 1990 : 34) 작업이 유용한데, 이러한 개념들에는 기술 변동, 생산 재조직, 공간 재입지 등의 변수들이 포함됨. 기술 변동으로는 장인적 기술의 재도입과 ME혁명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 장비화, 생산 재조직에는 유연화, 공간 재입지의 경우에는 분산과 집중이라는 변수들이 포함됨(한상진, 2007, 28~77 참조).

- 사회적 자본 및 제도적 관점들

숙련의 제도화에 관한 문제³는 산업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음. 현재 제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숙련의

수직적 통합은 내부 거래비용이 외부 거래비용에 비해 낮을 때 발생한다. 이와 같은 수직적 통합의 경향은 기업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들 간에 기술적 상호 보완성이 큰 경우 높아진다. 한편 수직적 분리는 내부 거래비용이 외부 거래비용보다 클 때 발생한다. 이는 시장의 확대로 인한 분업의 증가를 반영하는 작업의 외부화를 가리킨다(정성훈, 1992: 86-87). 또한 수직적 분리는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지구로의 집중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한상진, 2007, 33-34쪽 각주 9).

³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독일·영국·미국·일본에서의 숙련의 정치경제」 참조, 2011, 캐슬린 씨렌, 신원철 역, 모티브북. 독일과 일본은 숙련공에 대한 직업훈련실시와 정책적, 제도적 시스템 개발 등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숙련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

제도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육정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사례임.⁴ 독일과 일본에서처럼, 숙련의 제도화는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연결됨.

경제와 문화의 상관관계 및 중요한 변수인 신뢰, 도덕, 공동규범에 대한 문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1995)를 참조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문제는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1994), 난린의 「사회자본」(2001) 등을 참조할 수 있고, 숙련의 제도화는 캐슬린 씰린(2004)을 참조할 수 있음.

뒤르켐의 「사회분업론」(1893)은 사회적 분업과 연대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유용한 참조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유기적 연대”와 “아노미적 분업” 개념은 을지로 인쇄산업이 형성하고 있는 연쇄하청사슬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공동규범의 정도, 그리고 유기적 연대의 조건을 살필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베버의 「경제와 사회-공동체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제하는 공동체(wirtschaftende Gemeinschaft)”와 “경제규제적 공동체(wirtschaftsregulierende Gemeinschaft)” 개념은 현재 을지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까마(영업 브로커), 모찌꾸미(소사장), 협동조합, 노동조합, 원청업체, 하청업체, 자발적인 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주체들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조명하는데 유용함.

⁴ 「독일 미텔슈탄트의 성공이 주는 교훈」, SERI 경제 포커스 2013.7.23., 박준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위와 같은 이론적·개념적 자원들을 그림으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연구의 분석틀



그림 2-1 조사연구의 분석틀

III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의 현황

- 1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 배경
- 2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 지역별 특성 : 을지로, 필동, 방산시장
- 3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
- 4 인쇄 제조업 공동체 관련 단체

III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의 현황

1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 배경

“옛날에 여기 다 잘됐어. 언제부터 내가 힘들었냐. 우리 집 사람이 돈 벌려 다닐 때부터 힘든 거지. 우리 아버지가 2002년에 돌아가셨고. 그 전부터 힘들었어. 한 15년 된 거 같아. 이 자리를 내가 89년에 왔어. 그때는 바빴지. 그때는 엄청 일 많았었지. IMF 때까지만 해도 일은 있었어. IMF 때도 다 망한다고 그런데도 되게 바빴어. 그 전에는 보통 11시 전에는 집에 간 적이 없어. 김대중 정부 1년까지는 괜찮았어. 그리고 이 동네 아는 사람 1/3이 갔어. 떠났어. 얘기 들어보면 통닭집 하다가 망한 사람, 나가서 근데 잘된 사람이 없어. 나가면 할 게 뭐 있어. 나 같은 경우에도 내 기술로 그냥 버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내가 나가면 경비해야 돼. 60 다 돼가. 56년생이야 56년생.”(사례 A)

IMF 이전 우리나라는 ‘단군 아래 최대 호황’이라는 ‘3저 호황’의 특수를 누렸다.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지 역시 IMF를 기준으로 경기가 갈린다.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은 IMF 이전처럼 “경기만 풀리면 된다”고 막연한 기대를 피력했다.

중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3년 우리나라 계열기업군(그룹) 155개 가운데 46개가 중구 관내에 있었고, 서울시 전체 금융·무역·국영기업체의 40%가 남대문로, 태평로, 을지로 1·2가, 명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은행, 외환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업 본점의 80%가 중구 관내에 입지해 있었으며, 특급호텔 10개를 포함하여 관광호텔 20여 개, 신세계·롯데 등 유명 백화점이 모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을지로 6가 주변에는 거평, 두산 등 현대적 초고층 유통타운이 형성되어 있었다.⁵ 즉 서울의 상업,

금융업, 제조업, 숙박업 등이 종로와 중구 을지로와 충무로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어 있었다.

IMF 이전에 이미 현재의 집적지 분포를 형성하고 있었던 을지로 인쇄 제조업의 ‘분산과 집중’ 현상 또한 중구의 위와 같은 변화 발전 양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지의 인쇄 골목 형성과 이동은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남대문로, 태평로, 을지로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지리학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 3대 도로는 조선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로의 개발은 종로-을지로-충무로 순으로 진척되어 왔다. 종로가 조선시대부터 개발되었다면, 을지로-충무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개발되었다.⁶

일제말까지도 대형 금융기관의 본점이 모두 남대문로에 집중되어 있었고, 서울의 제조업 또한 대부분 오늘날 종로·중구에 입지해 있었다. 1936년 당시 서울의 총 제조업체 수는 708개로 중구 관내에 324개(전체의 46%)의 공장이 있었고, 이 연구의 관심 업종인 인쇄·제본은 71.4 %가 집적해 있었다.⁷

“옛날에는 을지로 1가서부터 점점 밀려서 오다가 보니까 지금 을지로 3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필동 오장동 방산시장 장충동 지금은 신당동까지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이제 점점 밀려나가는데 더 이상 밀려갈 데가 없는 거죠.”(사례 H)

이러한 을지로 인쇄 제조업은 초기에는 시청 바로 옆 을지로, 남대문로,

5 종구청 홈페이지 산업/경제 참조,
<http://www.junggu.seoul.kr/web/w05/w05030701.php>

6 종로, 을지로, 충무로에 대한 정보는 다음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사전 참조,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7a2408a>

7 종구청 홈페이지 산업/경제 참조,
<http://www.junggu.seoul.kr/web/w05/w05030702.php>

태평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등 주로 을지로 입구에 광고업체들과 함께 서울의 “광고메카”를 형성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수도권 도심개발에 밀리면서 인쇄업체들은 인현동, 필동, 방산시장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이동하기 시작하고, 현재는 남쪽으로는 충무로 퇴계로를 건너 필동 장충동 신당동 등 남산 바로 아래까지 밀려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오장동과 광희동을 넘어 동대문까지 치고 올라가 있는 형국이다. 일부 업체들은 상황에 따라 구로와 성수동,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일산동구의 장항동까지 이전하기도 하지만, 이전한 업체가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

종로, 을지로, 충무로는 서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고 있는 교통 요충지로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특히 을지로와 충무로는 ‘수도 서울의 중심지, 서울의 사대문 내 중심 업무지구 (Central Business District)’로서의 공간적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구의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시설에 속한다.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형성은 이러한 수도 서울의 사대문 안, 중심 업무지구의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시설에서 인쇄문화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육성되어 온 것이다.

“여기 원래 살림집이야. 살림집인데 집주인이 근데 을지로 입구에서 열로 팍 차고 올라오면서 집주인들이 이 완전 흙만 합판집이었었거든. 인쇄소가 막 밀려오는 바람에 이 아줌마들이 전부 다 부자 됐어. 집주인들이 다 부자 됐어. 근까 우리는 지금같이 일 없을 때는 일 썩어빠지게 해갔고 임대료 내기에도 바빠. 임대료 몇 개월 밀리면 또 나가라 어쩌라 막 그랬 쌌지.”(사례 G)

“원래 장교동에 거기서 쫓겨서 다 이리로 온 거야. 삼화인쇄소도 구내무부, 지금 외환은행. 구 내무부 건너편에 삼화인쇄소 자리가 있

었어.”(사례 A)

“내가 발을 들여놨을 당시(83년)에는 을지로 1가가 광고 메카였어요. 판촉물 이런 게 거기가 일번지였었고 그 바로 옆에 삼화인쇄 아까 얘기했던 유기정 회장님의 거기에 그 삼화인쇄소를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본사는 놔두고 양평동에다 공장을 크게 차렸지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지금은 이제 광고가 방산시장 쪽으로 많이 응집돼있어요. 근데 방산시장에는 이를테면 모든 업체가 다 군대로 따지면 삼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갔을 때만큼은 광고가 거기 일번지 삼각동이라고 그러죠. 거기 주소가 삼각동이에요. 수하동이라고 길 건너 삼화인쇄 그 쪽으로는 인쇄 거기에 모든 갖가지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길 건너 수표동 거기는 본격적으로 옵셋 그 당시에는 마스터 옵셋이 인쇄기계 중에는 그래도 시작단계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전부 밀려와서 저 위까지 올라가 있지만.”(사례 H)

2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 지역별 특성 : 을지로, 필동, 방산시장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 지역은 크게 3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현동에서 오장동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을지로와 주로 재료, 선물박스, 특수인쇄 등이 밀집되어 있는 방산시장, 그리고 앞의 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시설과 규모가 큰 업체들이 주로 모여 있는 필동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지역이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지역 모두 인쇄의 모든 공정이 처리될 수 있으나 각각의 지역이 중첩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방산시장, 을지로, 필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1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 지역별 특성

2.1

을지로

“방산시장이 여기가 원래 재단소가 몇 군데밖에 없었어. 종이 취급하는 데 지업사가. 지금은 많이 생겼지만은. 그때 당시 내가 봤을 때는 78년에 봤을 때는 재단소가 몇 군데 없었고. 충무로 퇴계로 그쪽에 많이 있지. 인쇄소여 거기는. 방산시장은 땅콩과 건어물 좀 팔았었어. 그러다가 지업사 종이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벽지가게가 많이 들어왔지. 비니루 봉투. 과자 봉투 이런 거. 그때부터 그라비아 인쇄가 몇 군데 있었어. 인현동은 종이 인쇄고. 그 쪽은 원래부터 충무로 그 인쇄물 영화 포스터 같은 거, 그런 게 되면서, 인쇄 공장이 많이 생긴거지. 포스터 홍보물 찌라시. 대한극장 명보극장 옛날에 여기 국도극장이 있었어 여기에.”(사례 F)

“그리고 여기에 중구청이 생기면서, 서류 같은 거, 뭐, 찍고 자르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부터 인현동이 인쇄가 많이 유행이 된 거지. 변창이 된 거지. 원래 을지로 3가부터 중구청까지, 퇴계로까지, 을지로 3가, 2가, 또, 그 쪽도 많이 활성화 됐지.”(사례 F)

을지로 인쇄 골목은 을지로 입구 백병원 사거리에서부터 인현동 인현시장을 거쳐 서쪽으로 중구청과 오장동 사거리, 광희동까지 뻗쳐 있어 분포도가 가장 넓다. 이 지역은 인쇄업체와 인쇄관련 업체들이 가장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업체들이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비좁은 골목길을 따라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특성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인현시장과 중구청 뒷골목은 인쇄 골목의 역사와 인쇄업체들의 애환이 깊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는 접착, 싸바리 등 손과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가능한 수작업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다. 책상 하나만 놓고 영업만 하는 영세한 기획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업체들은 대개 사무실 하나를 공동으로 얻어 같이 나누어 쓰는 모찌꾸미 형식을 하고 있다. 도무송, 푸라톤, 합지, 코팅 등 주로 수동 혹은 반자동 기계 한두 대를 가진 영세업체가 많이 있고, 이를 또한 대개 두세 집이 모여 공동으로 작업장을 쓰는 모찌꾸미 형식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모찌꾸미 방식으로 모여 있는 업체들은 임대료를 분담하고, 서로 일거리를 소개시켜주는 등 시설연합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영세업체들로서 소사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림 3-2 인현시장 부근의 인쇄골목

을지로 인쇄골목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쇄와 관련된 모든 상세한 공정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연관업체들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지금은 손님이 거의 없어 문을 닫고 있는 날이 더 많고, 문에 붙여 놓은 전화번호를 보고 손님이 찾을 때만 간간히 나와서 일하는 붓글씨 업체, 다른 용도로 쓰이기는 하지만 활판인쇄 업체 등이 여전히 눈에 띈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일부 기계와 기술의 변천사와 함께 이 기계들을 여전히 다루면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공들을 만날 수 있다. 인쇄관련 서비스업으로는 내부 삼발이 운송업체들 및 할아버지들의 지하철 택배, 그리고 삼발이 제작업체, 인쇄기 수리업체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을지로, 충무로 지역의 인쇄 및 광고업체를 홍보하는 책자인 「인쇄

BOOK⁸의 목차에는 아래와 같이 총 79개의 인쇄 및 광고 관련 목차가 실려 있다.

“CD/DVD 제작, DM발송대행, OPP필름, POP, PP화일, PVC카드, U.V 교정, U.V인쇄, U.V평판출력, 간판/광고, 경량칸막이, 고무인, 고주파/철형, 광고기획, 그라비아인쇄, 금박인쇄, 금속인쇄/금형, 넘버링, 다이어리/수첩, 도무송/박스, 도무송칼, 동판/수지판, 드럼스캔, 디자인, 라벨(테이프), 마판, 명패/상패, 명함, 목·금형, 바코드, 번역(다국어), 복사, 봉투, 부직포가방, 부채, 붓글씨, 사진·현상소/슬라이드현상, 사진기자재/카메라, 상업사진, 쇼핑백가공, 스티커, 상장케이스, 신용정보, 실사출력/현수막, 실·실가공, 실크인쇄, 악보도안, 오시·미싱, 에폭시, 인쇄/출판, 인쇄기기판매·수리, 인쇄기계운반/도비, 인쇄꼬리표, 인쇄교정, 일러스트, 잉크충전, 자석스티커, 장부, 재단/접지, 전산용지/전산소모품, 접착, 접착메모지, 제본/제책, 지업사/지류, 출력센타, 출판사, 카드, 카렌다, 카본인쇄, 컴퓨터·판매·A/S, 코팅, 판촉물/행사용품, 포장자재/기기, 포토CD, 하드카바, 합지, 연마.”

이외에도 을지로 인쇄골목에는 소위 ‘객공’이라고 불리는 인쇄 일일 노동자를 대주는 ‘○○인쇄인력’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는 인력알선사무실도 문을 열고 있다.

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인현동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여 이주한 업체들이다. 따라서 대부분 시설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고 깨끗한 곳이 많다. 인현동에서 성장하여 이주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

예 자기 건물을 짓고 아주한 업체도 더러 있고, 직원도 5인 이상 업체가 많다. 자기 건물이 아닌 업주들은 시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림 3-3 현대화된 시설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스크린 인쇄를 하고 있는 필동 작업장

“인현동은, 원래 인현골목은 인쇄가 처음 시작됐는데 옛날에는 인쇄 자체가 자동화시스템이 아니고 제가 처음 80년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반자동 수동이었거든요. 종이도 지금은 기계가 이렇게 물고 들어가지만 그 때는 사람이 손으로 한 장씩 넣어줬어요. 넣어주면 아대가 딱 딱 물고 들어가서, 인쇄가 돌아가는데, 빨고 들어가는 기계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때만 해도 규모가 작고 다들 열악하고 이런 상태고 기계 시스템 크기도 적고 그랬는데 기계가 자동화되고 커지면서 공간 자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 들어갈 공간도 안 되죠. 차가 들어갈 골목골목도 좁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업체들이 필동으로 올라오고 또 거기서 크면서 안 되면 성수동 가고 일산으로 가고 이렇게 다 빠져 나가는 거죠. 지금 성수동 일산에 이런 분들이 원래 그 쪽에서 처음 시작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읊지로 쪽에서 기반을 닦다가 나가신 분들이 거의 90% 될 거에요. 시스템이 발전하고 커지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안 되고 협소하고 그런 문제 땜에 필동 쪽에 인쇄소들이 많이 올라온 거에요. 90년대 초반부터 올라왔다고 그래요. 아마 성수동도 그때부터 나갔을 거에요. 성수동이 공장지대여서 건물 값이 굉장히 싼거든요. 땅값도 싸고 평수도 몇 백 평 그런 데가 많아요. 임대료도 싸고 땅값도 그때는 저렴했고 그랬는데. 그때 나가서 자기 건물을 사서 공장하신 분들은 부동산 값 올라 돈을 많이 버신 거죠. 필동으로 오신 분도 있고 성수동으로 빠져나가신 분도 있고.”(사례 B)

필동의 업체들은 대한극장 뒤편 필동로와 서애로 2차선 도로를 따라 남산공원 바로 밑까지 치고 올라가 형성되어 있다. 중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필동은 1960년대 이후 인쇄업체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체 건물 595동 가운데 28.6%인 170동이 인쇄용도의 건물이며 이는 매 10년간 평균 32.8동씩 증가한 수치이다.⁹ 2011. 5. 23 ~12.31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필동에는 인쇄관련 업체수 795개소와 인쇄업종 종사자수 6,518명이 있다. 이 수치는 대략 중구 인쇄업체의 16%와 종사자수의 46%에 해당한다.¹⁰ 업체에 비해 종사자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제본소 등 대형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해 준 한 피면담자는 필동을 “대한민국 인쇄업체 상위 10%가 모여 있는 인쇄업계의 ‘강남’”이라는

9 필동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관련 주민간담회(인쇄업소), 2012.10.

10 필동 경제인협의회 자료.

표현을 썼다.

23

방산시장



그림 3-4 방산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박스 업체

방산시장에는 그라비아 인쇄 등 특수인쇄가 많이 모여 있고, 쇼핑백, 선물상자, 종이컵 등 박스 종류의 인쇄업체와 이러한 제품들을 전시·판매하는 도소매 가게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을지로에 주로 종이인쇄 관련업체들이 몰려 있다면 방산시장에는 아크릴, 에폭시 등 되게 거칠고 냄새가 많이 나는 특수 재료들과 화공약품, 특수원단을 사용하는 광고·인쇄 관련 업체들이 많다. 그래서 인쇄의 판형을 만드는 작업에 해당하는 수지·동판·부식 작업들, 각종 박스의 목(금)형, 비닐 제품을 위한 철형작업

과 초음파, 옷의 라벨을 마무리하는 고주파, 행택(옷 상표)의 윤곽을 따내는 목(금)형 제작 등의 작업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5 방산시장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 작업장

“방산시장은 인쇄업으로 봤을 때는 프로테지로는 10%로도 안 될 겁니다. 사실상 방산시장 같은 경우는 인쇄업보다 비닐 같은 거나 원부자재가 많고, 실질적으로 인쇄는 종이 지업사, 패키지 쪽 박스 판매하면서, 그런 업체들인데 거기도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전시만 해 놓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오다를 받아서 거의 다 하청을 줍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방산시장은 의류 원부자재 같은 것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에폭시 그다음에 실크, 고주파 이런 것도 있고 딱 어느 업종이 인쇄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거기는 요즘에는 인

쇄업체는 많이 빠져 나왔고. 패키지하고 쇼핑백 이런 것만 하는 업체가 좀 있는데, 직영을 하는 업체는 내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다 전시만 해놓고 누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오다 받아서 견적 내서, 열맙니다 해주고, 자기들은 외주 처리하고.”(사례 B)

3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

3.1 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와 함의

표 3-1를 참조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전국 인쇄업체 및 종사자 수는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전국 대비 서울의 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대비 중구의 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이는 중구 인쇄 제조업 집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영세한 기획 업체나 소사장들은 불경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을지로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젊은 디자이너들 또한 강남이나 홍대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을지로에는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을지로에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도심개발의 여파로 교외로 빠져나갔던 업체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인쇄‘문화’ 산업의 전문화·분업화 경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자이너’와 ‘인쇄 제조업’ 간의 “유기적 연대” 또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을지로 ‘인쇄 제조업’은 인쇄‘문화’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집적 경향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표 3-1 인쇄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명, 개소)

항목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 수 (개)	서울	7,347	6,989	6,756	7,007
	전국	16,709	16,424	16,193	16,693
	중구	4,981	4,701	4,539	4,669
종사자 수 (명)	서울/전국	44.0%	42.6%	41.7%	42.0%
	중구/서울	67.8%	67.3%	67.2%	66.6%
	서울	32,701	28,124	26,591	26,903
	전국	71,716	68,707	67,380	68,339
	중구	16,780	14,793	14,181	14,121
	서울/전국	44.7%	40.9%	39.5%	39.4%
	중구/서울	52.3%	52.6%	53.3%	52.5%

* 서울시 인쇄업체 중 81.8%(5,736개)가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업체임.

자료 : 서울시청 홈페이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인쇄업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일산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나갔었는데요. 90년대에만 해도 외곽으로 시외로 많이 이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도심으로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지만 인쇄업 자체가 옛날처럼 여유를 많이 주지를 않아요. 납품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다(order) 내면 바로 내일 납품해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서는 시간이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 대개, 인쇄 디자이너나 오더(order)를 내리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한번 컨펌(confirm)을 봐야겠다, 인쇄가 나온 걸 봐야겠다, 그러면 외곽으론 갈 수 없잖아요. 파주 출판단지가 공동화상태가 되는 것이 그 때문이랍니다. 대개 기획사들이 강남에 있거나 홍대 쪽에 많이 있어요. 홍대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이유가 파주 출판단지로 가기 위한 길이가 짧잖아요. 거기서 자유로 타면 바로 되니까. 그런데도 왕복하면 하루란 거예요. 가는 시간, 가서 보고 또 오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파주출판단지가 내가 알기로 많이 빠져 나

왔어요. 큰 업체들도 많이 빠져나오고 지금 있는 업체들도 인쇄소들만 남아 있고. 출판사들도 많이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를 많이 들어요.”(사례 B)

“이 동네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각자 알아서 가지 요 뭐. 이 동네에서 버티지 못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못 버텨 배달일도 하고 그러는데. 갈수록 이 동네가 차츰차츰 없어져요. 전에는 이 사무실 예, 이 정도 사무실이면 3팀 정도가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90년대 예. 근데 IMF 터지고 나서는 정리가 됐죠. 그러다가 2000년도 또 한 번 조금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그러는데, 전에는 모찌꼬미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돌아다니는,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쓰는, 그런 데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자체가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사무실 같이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만치 않죠. 나는 그래도 갈수록 뭐라 해야 하나. 사무장이 좀 특이 케이스라고 합디다.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세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 그 분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디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고, 나를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어요. 이 동네에 사람이 있다가 많이들 가요. 가면 나를 주고 가요.”(사례 N)

32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점들

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구 인쇄산업의 컴퓨터화와 디지털화는 중구 인쇄산업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쇄산업의 자본화가 진행되면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퇴출되거나 소사장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있고, 아예 인쇄업을 접거나 업종 변경을 시도한다. 기술을 소유한 업주들은 다시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객공생활을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디지털화의 발전은 거래방식, 작업 환경, 생산 과정의 변화를 초래하고, 디자인 등 구상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무질서한 단가경쟁이 노골화되면서, 수주산업이 가지는 약점이 더욱 증폭되고 있어 업주들은 상시적인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에 의한 기계화와 자동화는 생산량과 속도를 높이는 장점과 함께 일량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했으며, 이는 단가경쟁으로 인한 수익율의 하락, 2부제 작업의 도입 등으로 인한 생활세계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물량은 줄지 않고, 생각만큼 늘지 않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은 줄진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만 강조해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수치상으로는 줄진 않아요. 그리고 전자출판은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인터넷 출판물이 미국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종이 소비량이 계속 늘었어요.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도 그렇고요. 다만 성장할 수 있는 폭이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거죠. 저성장으로 바뀌는 거지 역성장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한솔제지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계네가 M&A 통해서 다 편입을 시켰어요. 실질적으로는 한솔이 거의 독과점인데 빅5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개 회사 빼놓고는 다 한솔거란 말이죠. 개네들 주식시장 금융시장 통계 보면 매출이 줄질 않아요. 매출 줄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어 봤어요. 그런 거 봐야 되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안 줄었어요. 일량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 그전보다 줄어들었어요. 대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업체수가 많아져서 그래요. 기계 설비가 늘어나서 최근 10년간만 해도 이 쪽 충무로 을지로 지역 쪽에서만 생겼던 컬러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보다 2배 이상 생긴 거 같은데, 당연히 일이 줄죠. 그래서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일은 성장이 고 성장은 아니지만 역성장은 아니에요. 저도 단가 안 좋은 일은 안 하는데

요. 1년에 4억 이상을 벌었는데, 백만원짜리 해 가지고 10만원 남는 일은 안했죠. 백만원 짜리 하면 내가 70만원짜리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하고, 그때는 직원들을 쉬게 했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익이 창출이 됐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10%마진 안 보고 하죠. 그럼 서로 일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업체수가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일량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단가가 안 올라서 그렇고요. 옛날에 이만큼 일을 했으면 10만원씩 받았는데 십년 전에도 10만원 받았어요. 지금도 10만원 받아요. 근데 가능한 건 기계가 좋아져서 생산성이 좋아져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다보니까 기계 속도가 빨라져서 생산성이 향상이 됐는데 거기에 물량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일 자체가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죠. 저성장산업이란 것 맞아요. 근데 사양산업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파트는 있어요. 청탁도 없어졌고요. CTP(computer to plate)라는 기계가 나오면서 제판이라는 직업도 사라졌어요.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몇 개가 사라졌거든요, 이 업종에서 그런 것은 빨리 이직을 해야죠. 계속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사례 J)

33

개발지구 선정과 관련된 문제들

현재 중구에서는 3개의 개발지구 관련 사업들이 중복,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간에 대상지 선정과 개발방향을 놓고 중복이 발생하여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의 유치·육성에 필요한 산업환경의 체계적 개발과 정비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제’(가칭 산업뉴타운)를 도

입했다(정병순, 2009). 현재 “산업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차 개발진흥지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지에 따라 진행 정도는 상이하다. 을지로 일대의 인쇄 제조업 공동체는 2차 개발진흥지구의 대상지 선정('10.6.3)에 포함되었으나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선정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방향 간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 서울시(역사도심과)는 추진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방향을 정한 이후에 중구인쇄 특화지구 대상지 변경(안)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중구 인쇄특화지구 사업의 향배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이 웃기는 거죠. 다 해놓고 나서 나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지. 세금 다 받아먹었잖아요. 구청에서 여지껏 다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되요. 공장하지 말라고. 주택가라서 안 된다고.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공장 다 하게 해주고 나서, 공장 등록까지 다 내주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공장 폐쇄하라고 말이 안 되죠. 근데 대한민국 그런 게 많잖아요. 힘 없으면 당하는 거죠.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신경 안 써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죠. 완성이 되면 믿어요. 너무 많이 봤잖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제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요. 당장 세운상가도 오래됐고요. 저 아래 재개발부터 해갔고, 되게 많아요.”(사례 J)

다음으로 중구청의 <필동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¹¹ 계획과정에서 필동의 인쇄제조업체와 중구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현재 분쟁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2011년 4.27 재보선에서 최창식 후보가 당선되

11

중구, 2012.10, 「필동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관련 주민간담회(인쇄업소)」

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청계천 복원, 서울광장 조성, 뉴타운사업 등에 깊이 관여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취임 이후 중구를 ‘명품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충무로 인현동, 오장동 일대에 인쇄정보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여 중구에 산발적으로 위치해있는 영세 인쇄업체를 모으고, 남산 자락은 명품 주거 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¹² 중구청의 <필동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필동의 인쇄업체들과 분쟁을 일으켰다. 중구청장은 2013년 7월 3일 현재, 소음배출시설 미허가 업체 20개사와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3개 업체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쇄명령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2차, 3차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쇄업체들은 필동 경제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새누리당, 국무총



그림 3-6 필동 경제인협의회 비상대책회의(2012.02.01, 비상대책위사무실)

12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http://airstock.com/powernews/news_view.htm,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http://www.asiae.co.kr/news/view.htm>

리실,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등에 생존을 위한 건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¹³

4 인쇄 제조업 공동체 관련 단체

4.1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인쇄산업정보협동조합은 1962년 창립되어 현재 1,416개소의 회원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 협동조합은 주로 인쇄업체의 이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면서 옵셋인쇄과 283명, 사진제판과 213명을 배출했다.

이 협동조합은 현재 회원사들을 위해 B2B 전자쇼핑몰을 통한 원부자재 비용절감, 경영 및 정보화 지도 교육사업 참가, 인건비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및 친목도모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조합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원에 한해 수의기관에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매월 <인쇄저널>을 발행하고 있다.

4.2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문화협회는 1948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949개소의 회원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 문화협회는 인쇄문화의 진흥과 인쇄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으며, 1954년 기관지 <인쇄신문>을 창간하여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대한인쇄연구소 설립, 1998년 <한국인쇄백서> 발간, 2002년 <월간 프린팅코리아> 잡지 창간, 2007년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2009년 인쇄문화교육관 개관, 2011년 인쇄물수출진흥센터 설립 등 주로 인쇄기술과 인쇄문화의

¹³ 필동 경제인협의회, 2013. 07. 23, 「필동일대 중소기업(인쇄업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해결 건의서」 참조.

발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4 3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

서울지역 인쇄노동조합은 1998년 4월 7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대응, 노동교실 진행,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투쟁 등을 하였다. 특히 90년대 중반 넘어 확산이 심화된 컴퓨터 사용은 청탁과 화판을 이용한 수작업 디자인과 제판 업종을 급격히 사양화시키면서 많은 실직자를 발생시켰는데, 이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맥킨토시 기술학교”를 열고 실업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¹⁴

표 3-2 맥킨토시 이수자 교육현황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11월 현재
인원수	116명	254명	540명

자료 :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 「자활후견기관사업지원신청서」

이후 맥킨토시 기술학교는 “출판·편집·인쇄 디자이너 교실”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4 4

필동 경제인협의회

필동에는 대략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필동 경제인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의 상인, 주민과 함께 주로 인쇄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인들이 필동 경제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필

14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지역 인쇄지부, 2008, 「인쇄지부 20년의 발자취」

동 경제인협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어려운 이웃돕기(설, 추석, 연말), 학생들 학자금 지원, 어르신들 경노당 쌀, TV 지원, 관변단체 지원, 동네 대청소, 어린이집 후원, 독거노인 지원, 방과 후 교실 운영 등 연중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쇄관련 업체들끼리 자정 노력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삼발이 과적금지, 인도 도로변 물건적재 금지, 소음·악취 방지시설 설치, 주택, 도로가 출입문 열고 작업 금지 등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이다.



그림 3-7 필동 경제인협의회의 자정 노력 캠페인

IV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가치와 생활세계

- 1 을지로 인쇄 제조업의 분업체계
- 2 중구 인쇄제조업의 기술적 가치
- 3 중구 인쇄제조업의 문화적 가치
- 4 중구 인쇄제조업의 공동체적 성격과 생활세계

IV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가치와 생활세계

중구 을지로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인쇄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시선은 지금까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을지로 인쇄문화 요람”¹⁵, “관광자원”¹⁶, “첨단인쇄산업지역”¹⁷, “장인골목길”¹⁸, “공장폐쇄명령”¹⁹, “충무로 일대 인쇄정보산업진흥지구”²⁰, “인쇄문화의 메카 충무로”²¹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만큼이나 실제로 을지로 인쇄제조업체들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그 가치와 상관없이 중구 인쇄제조업체들은 지금도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 영세업체의 운명을 숙명처럼 헤쳐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1 을지로 인쇄 제조업의 분업체계

인쇄제조업의 공정은 기획, 출력, 인쇄, 제책 등 크게 4개의 부문별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각 공정은 인쇄물의 종류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어 전문화·분업화된다.

15 문화일보, 2001.05.2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16 코레일 여행안내 사이트 2004.02.23 <http://tour.qubi.com>

17 서울경제신문 2010.5.26. <http://economy.hankooki.com>

18 아시아경제 2003.05.01. <http://www.asiae.co.kr>

19 중소기업신문 2013.07.22. <http://www.smedaily.co.kr>

20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http://www.asiae.co.kr/news/view.htm>

21 2010 충무로 국제영화제 [충무로프로젝트No.9] 4 quotations + 1 interview : 인쇄문화의 메카 충무로 <http://chiffs.tistory.com/209>

인쇄 공정별 흐름도(하청 사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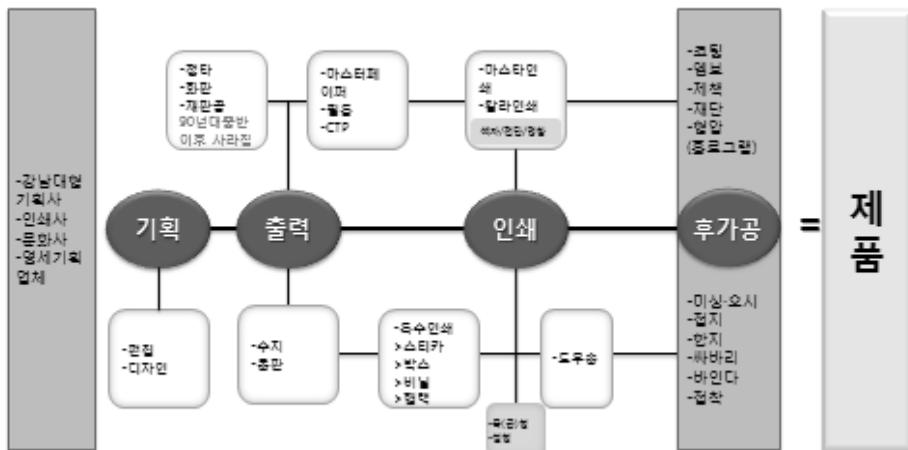


그림 4-1 인쇄공정별 작업흐름도(하청사슬체계)

1.1 기획

1.1.1 편집·디자인 기술의 흐름

80년대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 대부분의 인쇄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편집·디자인 업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컴퓨터 이전에는 파라핀 원지, 철필, 가리방(미세한 요철이 있는 철판)을 이용한 필경 작업, 청타(青打)라고 부르는 공판 타자기로 모눈종이에 타자하고 이를 사진 제판한 후에 화판에서 편집하는 수작업 등이 있었다.

80년대 중반에 보급되기 시작한 서울시스템과 맥킨토시 등 디자인 프로그램의 사용은 새로운 디자인 인력을 창출했다. 컴퓨터 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배운 새로운 여성 인력들이 배출되면서 화판에서 작업하던 수작업 디자인은 사라져 갔고, 화판을 이용하던 디자인 작업은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디자인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었다. 1천만원대를 웃돌던 맥

킨토시 디자인 프로그램은 이후 서체 개발과 인쇄 제품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고사양화로 경쟁적으로 진화하였다. 근래에는 디자인 프로그램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50만원대면 디자인 프로그램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림 4-2 을지로의 기획 업체 사무실

“그땐 전산 사식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활성화되기 전 시절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긴데 인화지에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 청탁 시절 후반부에요. 그 후에 점점 컴퓨터시설이 활성화되면서 청탁하시는 분들이 일거리가 안 생겼죠. 컴퓨터로 대체되면서 청탁란 사무실 자체가 사라져가기 시작한 초기였고 지금은 뭐 없어진 지 오래됐죠. 맥도 그렇고요 그때는 서울시스템이라는 한국 프로그램도 있었고 맥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청탁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에요. 8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 PC AT 뭐 이런 거 있기 시작했잖아요. 80년대 후반부터 근데 워낙 고가였고 그러다가 보편적으로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그쯤에.”(사례 J)

“지금은 맥이 필요가 없고 코렐드로야. 옛날에는 맥킨토시가 디자인 전용인데, 지금은 코렐드로야. 옛날에는 맥킨토시가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맥킨토시를 가르쳤어. 지금은 코렐드로로 다 돼. 맥킨토시로 배운 애가 계도 지금 40대지. 계가 하는 말이 그래, 아주 전문인데, 우리는 맥킨토시를 배웠기 때문에, 맥킨토시를 고집을 한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새로 배우는 사람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코렐드로로 다 된다는 거야. 맥킨토시가 비쌌잖아, 애플 거. 애플 컴퓨터가 그때 천만원이었어, 천만원. 그 당시에. 내 컴퓨터에도 코렐드로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일러스트처럼 포토샵처럼 같은 프로그램이야. 내 거에도 깔려 있더니까. 50만원 짜리에도 그 프로그램이 디자인이 다 돼. 방송국에서는 맥킨토시를 써야 된데, 디자인 전문이니까. 새로 배우는 사람은 맥킨토시를 배울 필요가 없대, 코렐드로로 다 된대.”(사례 A)

112

편집디자인의 양극화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편집디자인 인력들의 활동 무대는 을지로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지고 있다. 을지로 내부에서 일하는 편집디자이너들은 80년대 중반의 컴퓨터 학원 출신들이 많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반면, 을지로 외부의 기획업체들에 진출하고 있는 새로운 젊은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매우 중시하면서 주로 강남이나 홍대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이들은 을지로에서 일하는 것을 ‘인쇄소’ 쪽에서 일하는 것으로 굳이 “구별짓기”(부르디외)하면서 ‘전문 디자이너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방어하려고 한다. 아울러 홍대 쪽에 형성된 ‘예술인’의 이미지에 편승하여 본인들의 전문성 또한 사수하려고 한다.

반면, 을지로 내부의 편집디자이너들은 주로 인쇄 제조업체에 딸린 기획부서에 소속되어 일을 하든가, 편집디자인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을 차리고 하청을 받는다.

위와 같은 편집·디자이너들의 양극화 현상은 ‘을지로 인쇄 제조업’ 자체

가 갖고 있는 성격과 ‘을지로 인쇄 제조업’과 분업관계에 있는 ‘디자이너’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 같다. 구상과 실행의 관계에 있는 두 업종은 다루고 있는 정보와 디자인이 복잡해지면서 갈수록 대면접촉의 활성화 등 유기적 관계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두 업종 자체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업무를 다루는 경향이 강해지고,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을지로 인쇄 제조업은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홍대 쪽은 창조산업의 ‘아티스트’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집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사들이 을지로에 있으면 기획사라고 안 그런답니다. 그냥 인쇄소라고 그런데요. 디자인 회사 기획사 그럴려면 강남이나 홍대 쪽으로 가야만이 얘네 일 좀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에요. 인식 자체가 을지로에 있다 그러면 기획사나 디자인 회사라고 안 그런데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라고 그런데요. 걔네 인쇄소 아냐 그렇게 얘기를 한데요. 강남이나 홍대 쪽으로 많이 간대요. 그래야 그 쪽에서 일을 해야만이 얘네가 디자인 회사, 기획사라고 해준다는 거에요. 을지로 쪽에는 안 있을라고 그래요. 을지로 쪽에 있으면 디자이너들도 잘 안 올라고 그런데요. 인식이 깔려 있대요. 요즘은 홍대 쪽에 가장 많이 간대요.”(사례B)

“디자인 비용은 더 심한데요. 디자이너가 예전에는 급여가 굉장히 셨어요. 저희 업종에서도 제일 셨고, 그리고 웬만한 중견 기업 이상 됐었어요.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애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두 배 이상 됐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았죠. 콧대도 높았고요. 그만큼 받았어요. 책 표지 디자인 한 번 하면 보통 40, 50만원 이하는 안 했어요. 십 몇 년 전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 받아요. 무지하게 비싸서 그래요. 조금 인정해 주는 애들은 25

만원, 30만원 책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만원 그것도 여차하면 디자인 비 공짜로 해줄 게 아래요. 다른 거랑 같아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고, 디자인만 하라면 못 하겠죠.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싸겠죠.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능력 있고 잘하는 애들도 기획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는 애들 몇 명 두고 하다가 정리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사례 J)

“테헤란로 주변에 중견 기업들이 많아요. 2천년도에 IT 바람 불었을 때 코스닥 상장하고 그랬을 때 그때 많이 갔죠. 갔다가 별 볼일 없어서 다시 온 사람들도 있지요. 가까운데 회사가 있으면 편리성이 있잖아요. 신속성도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밀도 있게 해놓으면 요즘 특히 이삼십 대 애들은 일단 눈으로 보이는 것도 선호를 하거든요. 담당 결재는 부장 이사가 하겠지만 일은 담당들이 하니까 담당들이 20, 30대들이면 일단 그쪽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애들한테 일을 하고 A란 거래처가 있으니 그쪽을 알아봐라 했는데 100% 완전 명령은 아니니까 자기가 그 업체와 꼭 일은 안 해도 되거든요. 했는데 와보니까 충무로 지저분해서 할려고 하는데 맘에 안 들어요. 특히 아가씨들은 그러면 그런 쪽에 업체들을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근처에 가까운데 있잖아요. 그걸 노리고 가는 거고, 그쪽뿐만 아니라 구로 디지털 단지에도 많이 있어요. 제 친구 놈도 길 건너편에 있다가 구로동으로 이사를 간 지 한 5년 됐거든요. 그런 업체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중견 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따라서 가는 거죠. 특별히 영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간판만 달고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요.”(사례 J)

출력

“근데 우리 세대가 가면 기술 있는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제일 젊은 사람이 40대인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출력으로 갈 거 같애. 요새는 컴퓨터가 워낙 출력이 발달해 가지고 인쇄처럼 나와 버리니까. 컴퓨터 디자인이나 후가공은 살아남겠지.”(사례 A)

출력은 크게 제판과 소부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편집·디자인 작업을 마치면, 제판·소부 과정을 거쳐 인쇄기의 롤러(roller)에 걸쳐지는 인쇄판이 만들어진다. 출력은 바로 이 인쇄판 작업을 가리킨다. 이 공정은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 가장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이었다. 촬영·분판에 이은 원색분해, 하리꼬미(터잡기), 고바리(페이지 편집), 소부(인쇄판) 등의 제판 기술은 인쇄기술의 꽃이라고 불리었다. 그만큼 제판공들은 우대를 받았으며, 기술은 배우기가 어려웠다. 작업장에서 제판공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일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편집디자인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90년대 초반 제판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제판 작업은 출력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후 인화지나 필름으로 출력한다. 마스터인쇄는 출력된 인화지를 인쇄판으로 사용한다. 옵셋인쇄는 출력된 필름을 인쇄판으로 다시 옮기는 판화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작업을 소부작업이라고 하며, 필름에 약품을 처리하여 인쇄판에 옮기는 작업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부작업 또한 CTP(Computer To plate)의 출현으로 막을 내렸다. CTP는 2005년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요한 출력 장비로 보편화되었다. CTP는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를 컴퓨터로 편집 및 디자인한 후 컴퓨터에서 직접 인쇄판에 자동 출력하는 장비로, 기존의 필름 출력과 소부 작업을 줄임으로써 필름, 현상액 비용 및 장비 대금을 절약할 수 있다.²²

① 출력실 전경



② 아그파 CTP(compter to plate) 출력기



③ 립(rib)-데이터 변환 프로그램



④ 판(p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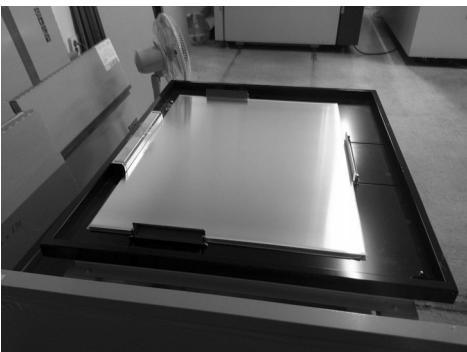


그림 4-3 출력실 전경

1 3

인쇄

인쇄의 종류는 35가지 정도²³가 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옵셋 인쇄, 마스터 인쇄, 스티카 인쇄, 명함 인쇄, 봉투 인쇄에서부터 특수 인쇄에 속하는 그라비아 인쇄, 스크린 인쇄, 라벨 인쇄 등 다양한 인쇄 업체들이 을지로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마스터 인쇄, 스티카 인쇄, 명함 인쇄 등은 자본화된 대형 합판인쇄소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고

22 커뮤니케이션 디오, 2011, 「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 편집」, 길벗.

23 한솔제지 홈페이지 참조 <http://www.papermall.co.kr/story/print03.asp>

정 거래처가 없는 영세업체들은 대부분 하청 전문업체들이기 때문에 갈 수록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고정 거래처가 있는 업체는 디자인과 일부 제본 시설까지 갖추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지만 자본화된 합판인쇄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합판회사 때문에 포칼라 하는 애들이 타격을 봤어요. 그래서 일이 없는 거예요. 합판에서 하는 것들이 다 컬러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수량이 작아도 대표적으로 명함인데요. 명함 한 각을 하더라도 20만원, 30만원씩 들었어요. 근데 지금 명함 한각하는데 만원도 안되니까. 디자인 빼고나서 제작비만 그것 밖에 안된다 말이죠. 누군가가 시작을 했는데 머리를 잘 썼죠. 특히 소량 전단지 찍는 사람들 광고지들 신문광고 삽지들 있죠. 대량으로 몇 만부 찍지 않고 1, 2만부 몇 천 부 아래 쪽으로 찍는 사람들은 합판한테 일을 대부분 다 뺏겼어요. 합판은 소량 컬러 합판에서 제작은 소량 컬러를 큰 기계에서 한꺼번에 찍어 가지고 잘라서 나눠주자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 합판은 원하는 컬러가 좀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저렴한 제작 비용 때문에 합판을 하는 거죠. 저도 누가 거래처에서 명함 한 3각만 해 주세요 하면 합판으로 하죠. 저도 합판 거래처가 두 군데 있어요. 개를 일 되게 못하는데 싸니까 하는 거예요.”(사례 J)

이뿐만이 아니다. 칼라 인쇄시장은 UV 인쇄와 디지털 인쇄술의 발달로 더욱 경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보통 4색의 컬러 인쇄물을 찍어낼 수 있는 옵셋 인쇄기는 먹·청·적·황의 4색 인쇄를 넘어 6색, 8색까지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UV 인쇄로 향상되었다. 4가지 컬러로 색을 낼 수 없는 ‘금색’ 등 별색을 인쇄할 수 있는 능력과 종이 질 또한 고급지, 특수지까지 수용 가능한 UV인쇄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UV인쇄시스템은 건조시간을 줄이면서 친환경 잉크를 사용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 생산단가, 경쟁력 등에서 부가가치 인쇄를 지향할 수 있다.²⁴

① 일제 미쯔비시 읍셋기 인쇄물 출력 부분



② 인쇄물 입력부분(먹·청·적·황 순으로 인쇄)



③ 판 편침기



④ 색 조절기



그림 4-4 인쇄실 전경

디지털 인쇄기(인디고)의 출현은 인쇄 이전의 준비 공정을 없애 버렸다. 데이터만 있으면 출력 작업 없이 바로 인쇄물을 프린트할 수 있다. 디지털 인쇄는 프레젠테이션이나 포트폴리오, 소량의 보고서, 브로슈어, 카

24

산업일보 홈페이지, 「UV인쇄 활용과 경쟁력 강화 방안」
<http://www.kidd.co.kr/news/168080>

탈로그 등 소량 출력물에 적합하여 다품종 소량의 컬러 인쇄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은 컬러 인쇄물시장을 다층화하면서 노골적인 단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제 살을 깎아 먹고 있다”고 표현한다.

“옴셋도 요즘에는 포칼라(four color)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화이브 식스 어쨌든 한 번에 찍어야지 돈이 되거든요. 두 번 찍으면 두 배로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5도, 6도 일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두 번을 찍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거기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티카도 마찬가지에요. 있는 놈들은 어떻게든 일을 하나 만들더래도 남이 안 되는 거 하나 넣는 거예요. 뺏어가지 못해서. 근데 그거를 찍을라면 우리는 두 번을 찍거나 세 번을 찍거나 해야 돼요. 거기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게네들은 그 기계 갖고 속도도 빠르고, 그 장비 싸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기계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례 B)

14

후가공(제책)

후가공은 인쇄의 맨 마지막 공정에 해당하며 책자의 후가공은 제책이라고 한다. 인쇄된 종이는 보통 제책 과정(재단-접지-제본)을 거쳐 책으로 완성된다. 후가공은 인쇄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청첩장은 오시, 박스는 접착, 전단지는 재단, 영수증은 미싱, 스티카는 도무송, 바인더는 싸바리, 초음파를 사용하는 라벨 인쇄, 고주파를 사용해야 하는 비닐 인쇄 등 제품별로 마무리 후가공은 다르고, 영역별로 하청업체들로 분업화되어 일을 맡고 있다. 이러한 마지막 마무리 작업 이전의 미려한 작업 또한 후가공에 속하며 주로 느낌을 더 주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가공이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알고 있는 금박·은박 인쇄를 연상하면 된다. 이외

에도 느낌을 더 주는 후가공 작업에는 부분 코팅, 홀로그램, 형압, 엠보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후가공 작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요즘에는 후가공을 인쇄의 꽃이라고들 한다.

현재 디지털 인쇄와 전자출판시장의 출현으로 인쇄시장의 불황은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다양한 특수 표현을 원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특수 후가공 업체의 수요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① 무선제철기로 풀을 붙이는 작업



② 책 한 권 분량으로 합치는 정합과정



③ 일정한 단위로 페이지를 합치는 접지작업



④ 삼면을 동시에 자를 삼면 재단기



그림 4-5 제본소 전경

중구 인쇄제조업의 기술적 가치

인쇄기술의 변화는 80년대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80년대 후반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의 등장을 시작으로 90년대 후반의 CTP(computer to plain) 출력기의 등장,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보급되기 시작한 디지털 인쇄기에 이르기까지 인쇄 공정 전반에 걸쳐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다. 각 공정에 두루두루 새로운 기계와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시설 규모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과정과 생산과정은 더욱 압축되고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디자인 기술의 발달과 후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기획·편집·디자인 기술은 더욱 정밀해지고 화려해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영예로운 직업으로 인정받았던 일부, 특히 제판업과 그 종사자들이 대거 몰락하였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컴퓨터의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더욱 정교해진 장인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컴퓨터의 도입은 공정 전체를 일신시켰지만 특히 디지털 출력기의 출현은 디자인부터 제책까지 모든 공정을 한자리에서 처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공정의 모든 기술과 시스템들이 자동화, 디지털화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료, 특히 인쇄 종이의 질이 그 두께부터 표면의 질감까지 다양하고, 일감과 일량도 다양해 자동화의 한계가 남아 있으며 수작업과 반자동기계가 비용 면에서 여전히 유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틈새를 다양한 하청업체들이 채우면서 하청 사슬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을지로 인쇄골목은 1) 단순 수작업, 2) 반자동기계의 존속, 3) 숙련된 장인적 기술의 보유, 4) 최첨단 디지털 장비가 공존하면서, 5) 인쇄문화의 하부구조적 역량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연하고 전문화되고 독특한 하청 클러스터 형태의 가치 사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쇄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 수작업

을지로 인쇄골목에는 ‘접착’ ‘싸바리’ 같은 단순 수작업이 여전히 존속한다. 물론 ‘접착’ 같은 공정은 자동화된 첨단 장비가 도입되어 물량을 소화하기도 하지만 소량의 제품들은 비싼 장비보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것이 단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쇄 작업은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중도에 폐기되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수정이 가능한 제품들은 수작업을 통해 바로 잡기도 한다.



그림 4-6 본드를 이용해 간단한 접착 수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

“팸방이니까 15월 받아요. 원래는 30월, 20원인데요. 비싼 건 엄청 비싸요. 대중없어요. 20원, 50원, 4백원, 5백원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 가

지 것이 있어요. 보통은 50원인데요. 식대비까지 6만원요. 9시부터 6시 까지, 시간당 5천원, 야간은 8천원요. 내가 할 줄 모르면 주변에서 쫓아 와서 해줘요. 우리 아저씨가 인심을 안 잊었기 때문에요. 서울재단 하면 알아 줬거든요. 바로 앞에 있었어요.”(사례 O)

22

첨단화된 자동기계와 공존하는 반자동 기계와 수동 기계

“임대료는 110만원. 우리는 두 군데잖아. 도무송 따로 합지, 따로. 저거는 한 천오백 정도 하면은 좋은 거 맞춰. 자동은 5천만원 4천만원 정도 하고. 그 기계도 나이가 많아, 50년이 넘었어. 독일제 하이델(베르그). 요새는 힘드니까, 요게 수동이라고, 수동은 손으로 서 가지고 한 장씩 넣 어 가지고, 기계 왔다갔다 하면 한 장씩 따잖아. 저게 떨 것이 있고 이게 떨 것이 있지. 종류가 다르지. 쉽게 얘기해갔고, 이렇게 두껍고 이런 거는 저기 자동에서는 못 따니까 여기서 따고, 저기는 얇은 거 스티카 같은 거 따고, 그러는 거지.”(사례 G)

을지로 인쇄 골목들에는 여전히 수동 기계와 반자동 기계가 첨단 자동화 기기와 함께 공존한다. 이러한 기계들에는 재단기, 도무송²⁶ 기계, 합지 기계, 코팅 기계, 푸라톤 기계 등이 속한다. 을지로에는 워낙 소량의 다양한 인쇄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들은 여전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아무리 소량의 인쇄물이라도 인쇄부수에는 ‘기본’ 수량이

26

‘도무송’은 톰슨(Tomsom)의 일본어 번역어이다. 우리말로는 ‘지기’라고 한다. 도무송 기계는 주로 원하는 모양대로 인쇄된 박스나 스티커를 위에서 눌러 모양을 따내는 작업이다. 이때 따내는 작업에 사용되는 칼을 목(금)형이라고 한다. 목(금)형 업체는 스티카 목형집과 박스 목형집이 분리되어 있다. 스티카에 비해 박스 목형집의 기계들이 좀 크지만 제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목재에 칼을 모양대로 수공하여 집어넣기 때문에 목금형이라고도 한다.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CAD와 CAM을 사용하지만, 장인적 손기술이 필요한 정교한 작업이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인쇄의 후가공에 속하는 작업으로서 보통 칼을 사용하는 재단 작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 재단기는 직선 재단만 가능한 반면, 목(금)형을 이용하는 도무송 재단은 인쇄물의 모양대로 재단이 가능하다.



그림 4-7 도무송 기계의 변천(수동, 반자동, 완전 자동)

라는 것이 있어, 경기가 좋고 일거리만 있으면, 가게도 유지하고 생계도 꾸리면서 그럭저럭 서민적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을지로 일대에는 이렇게 생계를 꾸리는 영세업체들이 80%를 웃돈다. 이들은 형편이 닿는 대로 다양한 형태로 가게를 꾸린다. 혼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든가, 몇몇이 모여 한 작업장을 같이 쓰기도 한다.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업체는 부부끼리 하든가, 그보다 좀 더 나아지면 ‘집사람’ 대신 직원 한 두 명을 고용할 수 있고, 이 정도 가게 수준으로 올라가면 웬만큼 “먹고 살만하다”고들 말한다.

현재 을지로 일대에는 도무송 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도무송 기계는 수동, 반자동, 완전 자동화된 기계가 공존한다. ‘도무송’ 업체는 기술이 간단하고, 패키지 제품(선물포장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현재 을지로 인쇄골목에 가장 많은 하청 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기계는 수동, 반자동, 완전 자동화된 기계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합지’는 자동화된 설비가 개발되어 있으나 을지로 같은 소량의 인쇄물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에게는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 4-8 합지 가게와 도무송 가게가 한 작업장에서 임대료를 분담하는 시설 연합(아래 쪽의 기계는 합지 기계, 위에 있는 합판 조각들은 도무송 작업에 필요한 목형)

“95년, 96년까지는 괜찮았지 막걸리라도 한 잔씩 먹고 할 정도는 됐지. 아 이거 10원 짜리 몇 장 해갔고, 장당 해봤자. 이거 하나 따면은 한 20원 밖에 안 줘. 그럼 이거 하루에 몇 장이나 팔 거 같아. 만 장 따야지 20만원이여.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공비 단가는 일절 안 올라가고 물가만 올라간 거여. 그리고 이 집이 도무송,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생기니까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것도 단가를 5원씩 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15원 받는 거 아녀. 자기들 일 안 놀고 할라고, 15원 쳐갔고 뺏어간다고. 합지는 최하가 50원, 도무송은 한 장 30원, 합지는 전기세하고 본드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싸지. 합지 기계는 뭐 비싼 것도 없어. 여기가 자리가 좁아서 자동 놓을 수가 없어. 자동도 몇 억씩 하는

데, 그거는 공장이 한 100평 이상씩 돼야지 갖다 놓지. 시내에서는 조그만 행택 같은 게 많다구. 이런 게 전부 행택이거든. 요런 거는 자동이 되질 않아. 천상 요걸로 해야 된다고. 양쪽으로 붙이는 거거든. 자동이 있는데 자동은 여기 갖다 놓질 못해. 자동이 엄청 크니까. 그런 거는 공장 평수가 200평이 돼야 해. 을지로에서 자동 합지를 놓을려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한 200평 정도면. 원래 여기도 집세 150만원이었어. 근데 내가 저거 40만원 깎아 가지고 110만원이지. 이거 다 동력이니까, 전기세만 해도 몇십만원 나와. 합지 가게는 특수 가게라서 많지가 않아. 이 근방에 한 스물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근데 도무송 집은 아마 한 천 군데 될 거야. 왜 그냐면 요거는 배우기 힘든데, 요거는 배우기 쉽다고. 저거는 일이 편해. 요거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고.”(사례 G)

23

숙련된 장인적 기술

인쇄는 전 공정에 걸쳐 숙련 기술을 요구한다. 숙련된 인쇄공이 되려면 적어도 2년에서 5년은 기름밥을 먹고 고생해야 한다. 인쇄일이 성격에 맞고 눈썰미가 빠를수록 한 공장을 책임지는 기장이 그만큼 빨리 될 수 있다.

80년대부터 활용된 컴퓨터 기술은 인쇄 전 공정에 걸쳐 빠르게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공정은 2~3년이면 배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을지로에는 여전히 손과 간단한 도구만을 사용하는 손작업부터 성격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장인적 숙련직도 병존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 을지로에는 컴퓨터와 디지털에 익숙한 기술 세대와 간단한 도구와 손작업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장인적 기술 세대가 함께 있다. 인디고와

같은 최첨단 인쇄 장비와 함께 숙련된 장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세대의 기술자들은 각 공정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익숙한 반면,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장비가 고장날 경우 판매 대리점에서 출장 나오는 전문기사의 A/S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장비와 프로그램이 낡아 경쟁에 뒤쳐질 것 같으면 투자를 해서 새로 나온 장비와 프로그램을 깔면 된다. 웬만한 공정들은 대부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을지로 인쇄 골목에는 간단한 산소통과 절삭기를 이용하는 철형 작업장, 밀링과 선반을 이용하는 인쇄기 수리·제작 공장, 반자동기계를

① CAM을 이용한 재료 철단 작업



② 레이저를 이용하여 스티커 모양을 MDF에 새김



③ 레이저로 MDF를 절단하는 작업



④ MDF 목형에 칼을 넣는 작업



그림 4-9 스티커 목형 제작 작업

사용하는 합지 공장, 도무송 작업장, CAM과 CAD²⁷를 이용하지만 손작업이 더 중요한 목(금)형 작업장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들의 뒷받침 없이는 ‘을지로 인쇄골목’도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숙련공들과 장인들은 40, 50년씩 나이든 기계와 함께 그만큼의 세월만큼 현재에도 짱짱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 전문적인 게 없고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한 2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자체 내에서 스카시 톱으로 다 쓸어서 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로 된 실톱 있죠. 톱으로 잘라서 그렇게 만들었죠. 자 대고 그려서 붙여갖고, 스카시 톱으로 잘라 갖고 만들었지. 이거 한 지는 한 20년 됐어요. 그러다가 수작업으로 하다가 이런 거에 자꾸 밀리니까. 수작업으로 한 13년 정도 했었어요. 스티카 기계를 돌리다가 그 전에는 다 공장장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썼는데 지금은 공장장이라는 사람들의 개념이. 옛날에는 인쇄소가 마진이 좋다고 그럴까 그래서 기계 한 대 놓고 두 명씩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혼자서 기계도 2, 3대씩 보니까.”(사례 C)

3 중구 인쇄제조업의 문화적 가치

3.1 숙련 과정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인쇄업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경위는 매우 우연적이다. 주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소개로 인쇄업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 친척, 선배들의 권유로 자의반 타의반 이끌려오거나, 동네 아저씨의 소개로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동생이나 형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공장에 뒤

²⁷ 송성수 편역, 2000, 「기계 설계 있어서 사회적 선택」, David F. Noble, 「혁신 과정의 이해」, Stephen Kline & Nathan Rosenberg,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참조,

따라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숙련 형성의 과정을 거치고 창업을 하는 과정은 단순한 권유나 소개로 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밀어 주겠다’, ‘한 번 해봐라’, ‘도와 주겠다’ 등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창업하기가 매우 힘들다.

물론 아버지가 하던 사업체에 뛰어들어 일을 배우다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공장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다가 인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주변 거래처나 업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과정 없이는 을지로 인쇄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직장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봤는가에 따라서 밀어주고 하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원단이나 뭐 돈 안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스티카 업계는 기계만 있으면 원단도 좀 밀어 주고 또 깔아주고 그런 습관이 많았어요.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생활 하는 협력업체. 그 업체들이 와서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착실하다, 아니면 재는 뭐 끝나면 술이나 퍼 먹고 회사도 자주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문도 금방 퍼지고 얘기도 나오고.”(사례 L)

기술적 숙련의 과정을 거쳐 창업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거래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하청사슬관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이다. 영세 하청업은 우선, 바로 윗 단계의 거래처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존속·생존할 수 있고, 기계·원단·재료 업체 등 모든 관련업체로부터 신용 거래를 트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모든 거래가 기본적으로 미수금이 깔리는 외상거래로 시작하기 때문에, 입문에서 숙련 습득의 과정을 거치며 종사자로서의 ‘신뢰’를 쌓지 못하면 더 이상 클 수가 없다. 을지로의 모든 행위자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관행적이며 구조적인 질서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주변 거래처 사람들의 시선은 을지로의 문화적이며 공동체적인 규범이 담겨있는 통과의례의 관문이자 규범적 시선인 것이다.

“직장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봤는가에 따라서 밀어주고 하는 게 많았어요.”라는 표현 속에는 을지로 인쇄업계에 배태되어 있는 뿐리 깊은 도덕과 관습이 스미어 있는 것이다. 이는 업계 내에서 스스로 창출해야 하는 내부 행위자로서의 ‘부가가치’ 과정이며 업계 내의 가치 사슬에 끼어들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을 검정(檢定)하는 과정이다. 일종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정인 셈이다.

3.2

클럽활동과 소모임 활동 및 자발적 협의회의 구성을 통한 연대 관계 유지

창업 이후 종사자들은 골프클럽이나 축구클럽 등 클럽 활동을 하거나, 이런저런 시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된 사람들끼리, 혹은 동종 업종의 종사자들끼리 모임을 꾸려 친목을 도모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대 활동을 한다. 지역 내의 동종 업종의 종사자들끼리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를 꾸려 사회적 자본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다. 필동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좀 더 조직화된 형태로 발전하여 “필동 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인쇄업종 종사자 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지역 발전 활동과 지역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집단적이며 자발적인 결사체이다.

“인쇄 관련 업체들 모임이 많아요. 산악회 골프모임 같은 것도 많고요. 5년 전엔가 인쇄관련 모임에서 한 30명 갔었던 거 같아요. 을지로, 필동, 성수동, 일산 다 혼합되어 있어요.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 익히고 지내는 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모임으로 인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인쇄업

을 함으로써 내가 거의 다 막내에요. 다 위에 분들이에요. 선배님들 얼굴 한 번 알고 그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의미로 가는 거지요. 내가 봐서 이런 분들을 이용해야 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사례 B)

“기독교 믿는 사람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친선을 다져요. 그런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물론 경쟁업체라지만, 돌아서서 서로 거래처 확보하기 위해서 불쾌한 수단도 더러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 협조하고 협력하는 편이에요. 뭐 같은 공장 개업을 한다고 하면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그 집에 무슨 애경사 있다고 하면 참여해주고요.

가령 나 같은 경우에는 인현동에 처음 어울렸던 사람들끼리 이런 뭐 모임도 하고, 그 회 이름은 각기 틀린데, 향우회라기는 우리가 태어난 데가 다 틀리고 자라난 데가 틀리니까요.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가령 내가 초창기 때 그 배달을 하다 만난 사람들끼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고, 아니면 조금 진화해서 그 당시에 내가 코팅을 처음 차렸을 때 그때 고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한 번 만들자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삼각회라고 했죠. 또 충무로 인현동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걸 충인회라고 하고요. 우리는 같은 업종이니까 동우회 이렇게 해갔고, 모임을 꼭 어느 지역에 제한을 하지 않고, 그때 그때 만났을 때 만난 사람들끼리 밥 한 번 먹자가 발단이 되어 모임을 한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나 다, 방산시장에 있는 사람도 모여서 할 수 있고, 여기랑 섞여서 지금 옛날에 삼각동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서 짹밀려나오면서 다 뿔뿔이 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방산시장에도 있고 오장동에도 있고 필동에도 있고 이러니까 다같이 모이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 업종을 한 가지 하지만, 처음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면서 같은 똑같은 업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뭐 만나서 모임을 하고 그것도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조금 발전되어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할 때쯤 돼서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던 게, 충무로에도 있었고 인현동에도 있었죠. 그 후에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딱 차려가지고 그 동네에서 모인 사람들이 삼각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삼각회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심지어는 성수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모임은 여러 군데 갈라져서 있지만 그 당시에 다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방산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처음 생면부지가 모임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런 계기로 만나서 이렇게 각 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아무래도 확장하고 이러는데 도움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나도 도움 주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사례 H)

3 3

조합 활동을 통한 공동의 규범과 신뢰 형성

“가령 인쇄산업협동조합은 인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조합 단체가 아닙니까. 우리 코팅 조합도 똑같이 있어요. 중소기업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인쇄조합 코팅조합 다 있어요. 규모가 인쇄조합보다 작을 뿐이지, 똑같은 코팅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이룬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서로 경쟁을 할지언정, 같이 재료를 구입하거나 재료를 수입해서 나눠서 쓰는 등 그런 걸 공유하면서 도움을 줘요. 또 이를테면 악덕업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우리집에서 얼마 해 갔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 누구더라 그러면 이제 배제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서로 도와요. 경쟁업체지만 서로 뜯어먹기는 할지언정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어느 업체에서 이 기계가 싸고 튼튼하더라 하면 서로 공유해서 그쪽 업체 선정하고,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 우리 경쟁업체지만 야 이거 좋아 같이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같이 교류를 해요. 재료도 어느 재료가 좋더라, 가령 생산성이 10분에 몇

장 나오는데 이쪽 거는 몇 장 더 나오고 조금 질이 더 좋더라 하면 공유하죠. 또 가령 내가 피치 못해서 이 쪽 재료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 저기 이쪽 재료상은 이렇더라 너네 좀 수정할 수 있냐 해서 이런저런 것을 공유를 해요. 조합이 그건 좋은 것 같아요.”(사례 H)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인쇄 종사자들의 제도화된 조직체로서 인쇄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대변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공동의 규범과 가치의 산실이다. 그러나 현재 조합에 대한 애증은 상반된다. 이는 서울 인쇄업체들 가운데 겨우 20%만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조합은 고령화된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 업체들은 대부분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에 대한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조합에 발만 걸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업종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내부의 공동규범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은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초창기 때에는 그쪽에 있는 임원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이사장 하려고 선거운동이 활발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죠. 저도 한때는 그거 한번 해 보려고 그쪽 모임도 몇 개씩 갖고 했어요. 지금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세요. 제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저희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보다 조금 어리거나 어쨌든 저하고 최하 15년 이상 25년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연배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몇 년씩 하다가 모임 안 간지 몇 년 됐어요.”(사례 J)

인쇄문화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이자 유연한 하청 사슬 체계

을지로 일대의 인쇄 골목은 손작업에 의지하는 영세한 자영업자, 수동과 반자동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공, 프로그램과 디지털 작업에 익숙한 편집 디자이너 및 출력 기사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산업공간이다.

이들은 하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인쇄물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제품을 분업을 통해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탁상용 캘린더는 ① 디자인·기획업체, ② 출력업체, ③ 인쇄업체, ④ 용지업체, ⑤ 삼각대 싸바리 업체, ⑥ 튜이닝 철 제책회사가 협업을 해야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다이어리는 ① 디자인·기획업체, ② 출력회사, ③ 인쇄업체, ④ 용지업체, ⑤ 금박업체, ⑥ 코팅업체, ⑦ 철형업체, ⑧ 고주파업체, ⑨ 튜이닝 제책업체, ⑩ 지도·약도업체 등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해야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다. 여기에 물류 서비스업과 재료업체, 원단업체 등이 사정에 따라 동원되어야 하고, 제품에 따라 부분 코팅, 홀로그램, 엠보, 형압 등 느낌을 더 주는 후 가공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각의 파트들은 전문화·분업화되어 도시형 제조업의 산업공간으로서 문화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공간은 도시 서민들의 생계 수단으로서 일거리와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이들은 대부분 하청에 의한 연계 방식을 통해 일거리를 처리하면서 ‘생계형’ 하청 사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몇십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몇십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업체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 수주산업의 특성상 경기 여파로 부침에 시달리고, 상시적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제도적 관심 속에서 아직은 똑같이 혼자서 기계 한 대를 놓고 하는 영세업체나 마찬가지로 방치되어 있다. 중구청장의 ‘법대로’의 공장 폐쇄 명령 조치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중구 인쇄제조업의 공동체적 성격과 생활세계

을지로 일대의 인쇄산업은 도시형 제조업으로서 포스트 포디움에 수반하는 경제체제 즉,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유연적 생산체제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팔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유연적 생산체제가 확립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본 특징은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지역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지역의 사회 문화적 전통과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두어 지역 내부의 통합이 잘 이루어고 있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강현수, 1999).

따라서, 을지로 일대의 인쇄 산업 종사자들이 의식의 저변에 어떤 근본적인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의 응집성은 보다 근본적인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두며, 그 결과로서 협력의 다양한 제도적 형태들(피오리 외, 1984, 66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규칙들은 문화적인 것이며, 그 규칙들은 상호작용에 대해 도덕, 신념, 이데올로기, 예의범절, 또는 치유와 실행의 능력이라는 형태로 호의적 가치를 만들면서 내부의 생활세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난린, 2001, 261쪽).

가족적 연대 및 형제적 결속을 통한 산업공동체 형성

“직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식구끼리 하니까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아빠가 하니까 딸은 대학 졸업하고서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아빠 일 좀 도와주라 어차피 뭐 남의 집 생활하는 거니까. 우리 아들도 심부름도 다니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 일은 개인이 아닌 인맥으로 다 되어 있어요. 나도 스티커 기술자 출신이니까 선후배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개해 줘 갔고 또 일도 있고요. 이 사람이 돈 안준다고 이 사람이 소개를 해 줬는데, 매몰차게 확 칠

수가 없잖아요. 한 다리 걸치면 다 형님 동생이 되는 거에요. 저도 이 바닥에 한 36년 넘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길가다 만나면 선후배 되고, 후배들도 보고, 선배들도 보고 뭐.”(사례 C)

증구 을지로 인쇄업체들 가운데 80%는 영세 자영업체에 속한다. 이러한 영세업체들은 부부간 분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견실한 업체는 2세의 참여도 눈에 띠고 있다.

업종 종사 기간이 대부분 몇십 년씩 되기 때문에 을지로 인쇄골목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간의 호칭은 보통 ‘형님, 동생’을 쓴다. 이러한 ‘형제적 결속’은 면접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구속력이 약하거나 무용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관계의 깊이나 상황에 따라 성장과 인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인쇄산업세계 내의 생활세계와 작업장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규범과 질서의 중요한 코드로 작동하고 있다.

42

소사장들의 시설 연합 공동체

“한 곳에 여러 개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 이 안에 옵셋 기계가 있는데 앞이 좀 남으면 남는데다가 마스터, 재단소가 들어와 같이 있는 거에요. 이게 모찌구미에요. 장점이라면 그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일도 소개시켜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한 곳을 얻으면 보증금도 많이 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얻은 주인은 거의 공짜로 있는데도 있었어요. 모찌꾸미 집에 내가 얻었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그 사람한테 월세를 받으면 자기는 공짜로 있는 거야. 그런데도 많았어요.”(사례 L)

“가게세가 65만원, 세 집이서 180만원, 내가 내는 게 65만원이에요. uv 코팅 집하고 이층에 한 집 더 있어요. 돈벌이가 안 돼서요. 기계 값이 싸요. 중고로 7, 8백만원이에요. 을지로에 한 30대 있어요.”(사례 D)

한 작업장에 여러 업체가 모여 있는 방식을 모찌꼬미(もち-こみ)라고 한다. 소사장끼리 모여 모찌꼬미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남는 공간을 다른 소사장에게 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사장 밑에서 일하다가 독립하여 같은 작업장 한쪽에서 사장의 일을 받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합판회사에 기계만 갖고 들어가 합판회사의 하청 일을 전문으로 맡아 처리해주는 소사장도 모찌꼬미라고 한다.

이러한 모찌꼬미는 처음 창업을 할 때 투자시설비가 없는 사람들이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저런 리스크에 시달리기 싫어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잘 못하고, 인맥도 없는 사람들이 아예 편하게 인건비나 벌자 하는 심정으로 취하는 가장 간단한 영업 방식이다.

4 3

도시형 산업으로서 인쇄산업의 생활세계와 문제점들

“근데 인쇄는 도시형 산업이라, 옛날부터 다 근처에서 일이 들어오고 이것은 또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쇄는 바로 초청장이니 청첩장이니 명함이니 지방 가서 해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도시형 산업이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어야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쇄소가 안 보인데, 일본은 길거리 인쇄소가 안 보인데. 일본에 사는 사람이 있어. 물어봐도 인쇄소가 안 보인대. 한 군데 몰려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명함을 하나 맡겨도 일주일 걸린 데.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폐기물이라 규제가 엄격하다네. 그 양 반이 이웅제씨라고 원당 사는데, 거의 반은 일본에 있어, 마누라가 일본

에 가서 뭐 삼겹살집인가 뭐 한다고. 그 양반이 일어를 잘해. 그리고 기계 브로커인 일본 친구가 많아. 이 사람도 브로커인데 일본에서 기계 브로커들을 많이 사귀었어. 이 사람이 수단이 좋아. 일어 하나는 이 사람이 잘 해. 포칼라기계 엄청 팔았어.”(사례 A)

도시형 제조업으로 구축된 중구 을지로 인쇄산업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2008년 인쇄업체와 종사자 수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전반적으로 정체 현상이 눈에 띠고 있다. 인쇄 물량에 비해 업체의 난립으로 단가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인쇄 장비의 발달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인쇄기의 출현으로 납기가 단축되면서, 인쇄업체 사이의 무분별한 경쟁을 강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쇄업체가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의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며,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을지로 인쇄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슬림화를 촉진하고 있다.

“인쇄소가 2부제를 하게 되면 제본소가 인쇄소를 따라 가게 되잖아요. 어쨌든 인쇄를 하고 나면 후가공이 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이걸 천원에 따왔으면 인쇄소도 남아야 되잖아요. 제본소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제본도 또 남아야 되니까 얼마를 불러요. 그럼 서로 그렇게 해서 맞춰서 가는데 2부제를 인쇄소도 하고 제본소도 하다 보니까 일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부제를 한 이유가 카드가 활성화가 되고 그게 일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거기에 대한 설명서 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엄청났어요. 2부제를 해도 쳐내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우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일 하나 오늘 맡기면 내일 되요, 안돼요,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내일 안 되면 다른 데 가는 쪽이니까요. 일 맡기는 사람이 이거 언제까지 됩니까, 물어봐

야 하는데 내일까지 해 주세요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때 카드 핸드폰이 워낙 일량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2부제를 안 하게 되면 일을 쳐내지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호황이었죠.”(사례 1)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도 도시형 산업으로서 기존 생활세계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쇄산업은 제조업이지만 인간의 감성과 판단력이 중요한 업종이므로 사회적 맥락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파주출판단지로 나갔던 업체들이 다시 시내 을지로로 들어오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주행 거리와 주행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교통상의 거리감보다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접촉할 수 있을 수 있는 공간적 근접성이 도시형 산업에게는 더 중요하고 충분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충분조건은 머리의 손과 발 노릇을 해야 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숙명적인 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머리’ 노릇을 하는 기획사와 디자이너들이 심리적이고 안정적인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쇄 ‘제조업’은 소비자나 원청업체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하는 일종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다가도 나와서 다시 일을 해주어야 한다. 일을 “빨리빨리”하기 위해 일이 없어도 2부제를 유지해야 하고, 단가를 낮추려고 해도 업체들이 포화상태라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압력하에서도 소비자들은 최고의 품질을 요구한다.

일부 종사자들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정부의 지원을 자주 언급하면서 부족한 정부 지원과 관심을 아쉬워하는 대목이 많다.

“디자이너들이 샘플잡고 이러는 데 한 달 두 달을 가요. 다 잊을만하면 물건이 와요. 그리곤 이건 내일 납품이래. 시안과 샘플은 두 달 석 달 걸

려도 납품은 하루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은 모르겠지만 인쇄업은 그게 가장 힘들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퀄리티를 요구해야 하는데, 시간은 적게 주고 단가는 최하인데, 퀄리티는 최상을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 인쇄업이에요. 가장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시간적 여유와 가격을 책정해주고 제품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인쇄업이라는 게 외국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거구요. 무조건 가격 경쟁만 시키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인쇄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사례 B)

44

일탈적인 사회적 자본의 활동 : 나까마

“보통 나까마라고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일만 받아와요. 일은 몰라도 일만 받아서 넘겨 놓고 계산서를 우리한테 끊고 중간에 마진을 챙겨 가시죠. 관공서가 제일 많죠.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하면 관공서가 제일 많고요. 경험이 있죠. 경험은 있는데, 자기 마진만 챙길려고 하니까 일을 못하죠. 천만 원짜리 일을 하는데 2백을 낼 줘라. 8백 갖고 네가 일을 해라. 그럼 제가 일을 해보면 돈 백만원 남아요. 근데 결재를 받고 줘야 되잖아요. 일을 주면서 먼저 줘라. 2백을 주잖아요. 일을 하니까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결재가 안되는 거에요. 관공서는 따박따박 나오죠. 보통은 10~15% 달라고 해요. 마진에 대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은 양심적이시고요. 매출에 그렇게 달라고 하죠. 많죠. 기계 하나도 없이 입만 가지고 별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낮에 술을 많이 드세요. 어떻게 보면 상거래상 불법인데요. 인맥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을 기대하면서 일하기란 어렵죠. 그런 사회가 올지 모르겠어요.”(사례 K)

수주산업의 성격이 강한 인쇄산업은 영업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발로 뛰는 영업’이 많았다고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상업적 홈페이지의 등장으로 생산단가가 노출되고, 지금은 거의 실비 차원에서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인쇄산업에는 영업 ‘브로커’가 여전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종사자들은 서슴 없이 인쇄업을 ‘인맥산업’이라고 말한다. 종사자들은 인쇄산업의 영업 브로커들을 소위 ‘나까마’라고 부른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주로 관공서라고 한다. 관공서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주로 과장급 이상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이들은 인쇄업체에 일거리만 물어다 주고 보통 10~15%의 금액을 현찰 선불로 챙긴다.

영업 브로커인 나까마는 자기의 인맥과 연고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식 사회적 자본의 변형인 셈이다. 이들의 영업력에 대한 평가는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필요악이나 암적 존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율 경쟁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부러운 직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고질적 납품 비리와 연관된 부정부패의 일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리적인 활동들은 도시 산업사회의 연대 의식을 해치고 건전한 분업 활동의 정신과 의지를 좀먹는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면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인쇄는 다 인맥이에요. 인맥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비리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사돈에 팔촌 인쇄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일만 따다가 디자인실에 주고 디자인실이 디자인하고, 가져다가 인쇄소에 맡기면, 이 사람은 명함 하나 갖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나까마라고 하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나까마들이 진짜 저희가 부러운 대상인데요. 차라리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나아요. 사무실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어디다가 야 나 네내 회사 이름으로 하나 파줘. 그럼 세금도 안 내죠. 이 사람들이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접수 다 받고요. 국회의장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동네에 있었다가 지금 엄청 커져서 이사 갔는데요. 다 이런 인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 짹 밀어 주죠. 그러면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인데요. 여기 직원들이 그 사람 거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요. 아예 선거 때는 거기 가서 살아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따오고요. 그 방식이 너무 많고요. 책자 같은 간단한 일들을 따오는 분이 나까마에요. 그 분은 들어갈 때 자기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보안카드 다 찍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직원도 아니었어요. 그걸 20여 년째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서 밑의 급들과 얘기도 안 하고 과장급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밑에 젊은 사람들은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더 상사 같고 자기네가 주인이고 자기네가 주는 입장이니까 말이죠. 나까마가 운영하는 방식은 뒷돈이에요. 아니면 집안의 누구 백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누구가 뭐 됐다 기다려, 나올 거야 이런 식이에요. 어떤 국회의장 동생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파주로 이사갔어요. 그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거든요. 금감원이면 금감원. 이쪽에서는 금감원 백이 세요. 금감원에서 협력업체로 넣어줘 하면 넣어줘야 해요. 저희가 5백이 남는다면 그 사람이 3백을 가져가요. 현금에서 현금으로 주고받아요. 형식으로 입찰을 보죠. 입찰 조건을 다 줘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사례 M)

“브로커들도 많이 있죠. 별 생각 없어요.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그건 자율 경쟁 체제에서는 전혀 합법적인 거지 뭐 잘못된 건 없죠. 인맥도 능력이고 그 사람들은 인맥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따와서 그 시설 있는 쪽에다가 자기랑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서 자기가 납품하는 과정만 컨트

를해서 마진을 창출하는 직업이죠. 자기가 일이 없어도 고정비가 나가질 않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죠. 일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일이 없으면 내 수입이 떨어지지만 대신 고정비가 안 나가잖아요. 여기 임대료 770만원하고 일 년에 나가는 돈이 월급과 보너스, 퇴직금 등 급여와 관련된 비용과 인건비와 그다음에 임대료와 재료비는 일량에 비례하니까 차치하고 일이 있든 없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최저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것만 해도 6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최하 6억을 제가 벌어야 하는데, 6억을 번다고 해도 제가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혼자 하게 되면 6억이 필요 없잖아요. 부담이 없을 수 있죠. 동생들이 있어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에요. 안 그랬으면 아마 저도 시설 있는 애들한테 얹혀가지고 저도 제 갖고 있는 거래처에서는 브로커만 했을 거에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더 마진이 많아요.”
(사례 J)

45

인쇄 산업의 자본화와 하청구조의 악화 : 합판회사

“애시 당초 일본 같은 경우는 합판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 가지고 일본은 지금도 인쇄 단가가 엄청 좋더라고. 시간도 많이 주더만. 여기는 금방 해 달라고, 급하다고. 일본은 절대 안 그렇더라고. 근데 합판집이 일본에 진출했어. 성원이나 얘들이 일본에 사무실 냈어. 성원도 그렇고 성진도 그렇고 큰 회사들은 다 그랬어. 거기는 인쇄비가 비싸거든.... 이제 합판집 때문에 계들도 당한 거야. 그게 원래 대구에서 시작했어. 옛날부터 활판기 공장도 대구에 있었어. 대구중공업이라는 활판기 회사가 있었고. 대구가 원래 인쇄가 발달했어. 대구에서 처음 합판집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카바(cover)했어.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온 거여. 여기서 인쇄 물이 안 나와가지고 대구까지 찾아간 사람이 있어. 얘들도 보면 거의 껍

데기야. 대출금 받고 거의 껍데기거든. 근데 현금을 받고 작업을 하니까. 선불을 받거든. 근데 얘들이 하청회사에 돈을 안 줘요. 지들이 다 못하면 하청을 주지. 다 100% 못하지. 한 3개월을 깔아놓고 그러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지그들 현금 다 받아놓고 말야. 돈 안주고 3개월 질질 끌고 말이야.”(사례 A)

합판회사는 200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 합판회사는 인쇄 기술과 자본,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의 결합으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합판회사가 을지로는 물론 전국의 컬러 인쇄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한다. 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을지로 일대에서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업체는 찾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 하지만 이러한 영세한 인쇄업체 사이에서 합판회사는 연매출 700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인쇄업체는 대개 을지로 일대에서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 부지나 시설 면에서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수동이나 파주, 일산동구 장항동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판회사는 을지로 일대에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한다. 그러니 합판회사 또한 을지로의 하청업체처럼 원청을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 전국의 영세한 인쇄·광고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하청 일을 하는 셈이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합판회사는 ‘인쇄소들을 위한 인쇄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합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초기 자본이 일반 영세한 업체들로서는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컬러 인쇄물시장에서 합판회사의 독점적인 지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합판회사도 업체 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있어,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합판회사의 시스템은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주문을 받고, 건조 시간이 빠른 UV 인쇄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거리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기가 단축된다. 인터넷으로 주문과 동시에 결재가 이루어지고, 규격화된 사이즈를 소비자가 선택·입력하여 주문을

하는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일은 처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명함이나 찌라시 같은 간단한 인쇄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비자들은 예시된 샘플을 클릭하고 문구만 변경해 주면 된다.

이러한 합판회사가 을지로 인쇄업체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받은 일거리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아니며, 자체의 공장에서 인쇄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일거리를 다시 하청 소사장들을 고용하여 외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역시 자본주의 경쟁 체제하에서 합판회사의 등장은 ‘머리를 잘 쓴’ 사례에 해당한다. 굳이 따지자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숙련공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보상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풍토 속에서, 일은 독점하지만 공동체의 규범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합판회사는 몇 군데 안 돼요. 처음에 성원부터 해서 몇 군데 생겨나긴 했는데, 그 사람들 초창기 땐 성장했는데 나중에 따라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합판 쪽은 저희 조합 애들한테는 적들이기 때문이죠. 컬리인쇄는 게들 때문에 눈에 띄게 줄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 애들은, 합판회사들은 우리 조합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쇄한다고 다 조합가입 강요는 안 하니까요. 조합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조합에 들어와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요. 괜히 일단 쉽게 얘기해서, 한 며칠 전에 케이블에서 한 번 방송 했었어요. 저희 조합 이사장이, 그 남 이사장이 한 번 방송나온 적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동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 합판 문제도 나왔어요. 합판 애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물량을 쓸어가는 바람에, 현재 우리들이 어렵다.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게네가 물량을 쓸어가서 새로

고용 창출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군데는 성원 같은 데는 타지에다 공장을 설립하고 그러는데, 타 업체들은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설비를 투자할 수도 있고요. 후가공을, 다 하청을 또 줘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받는 일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하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성원과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용어 자체가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이니까 다 우리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데가 합판업체예요. 합판업체가 다이렉트로 원청 거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건 합판으로 찍질 않으니까요. 주로 업자들끼리 거래하는 하청거래들인데, 그 애들이 하청으로 싸게 하면서, 그 애들이 하청을 또 준다 말이에요. 소사장이 아니고 협력업체예요. 하청업체죠. 그리고 쪼죠.”(사례 J)

V 결론

- 1 연구의 요약
- 2 연구의 시사점

V 결론

지역밀착형 산업지구에 대한 관심은 전후 고도성장의 한계가 노정된 1970년대부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량생산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조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제3의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북부 지역에서 형성된 유연 전문화 체계를 분석하는 피오리와 세이블의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이후, 산업의 세계화에 의한 국내 산업공동화와 지역사회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을 단위로 하는 산업정책 및 제조업 활성화의 성패를 국가적으로 중요시하기 시작했다(이종구, 2007). 2000년 이후 일본은 제조업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²⁸ 서울시는 제조기반 공동화의 완화를 위해 2010년 기계, 인쇄, 귀금속, 의류 등 도시형 4대 제조업 선정 이후 도시형 제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중소기업청은 소공인 밀집지역 6곳을 선정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소공인 경영대학, 공동장비대여 사업, 소공인 홈페이지 제작 등 소공인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²⁹ 제19대 국회는 2013년 4월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

28 일본 정부의 제조업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전략’(2002년), ‘신산업창조전략’(2004년), ‘모노즈쿠리 국가전략 비전’(2005년), ‘신경제성장 전략’(2006년) ‘산업구조비전 2010’(2010년),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년, 5년 주기 발표) 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137쪽.)

29 아시아경제 2013.05.01 <http://www.asiae.co.kr/news/print.htm> 중소기업청 선정 소공인 밀집지역 6곳은 다음과 같다: 서울 중구 인쇄골목,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골목, 성동구 성수동 구두골목, 종로구 창신동 봉제골목, 인천 동구 송림동 기계골목, 부산 동구 범일동 봉제골목. 「인쇄저널」, Vol. 307, 2013 June, 「중소기업청, 인쇄업계 현장 방문」, 09쪽,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결해 같은 해 6월 4일 공포하면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등의 문제점을 적용했다. ‘사업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로 추진되어 원주민을 재정착시키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대부분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이 그 요점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면재개발에서 유지·관리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활성화한다는 점, 그리고 물리·환경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지역을 개선시키는 총체적인 도시재정비”가 그 내용들이다.³⁰

그러나 현재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과 중복이 되어 그 적정성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중구청은 2013년 7월 8일 필동 소재 인쇄업체 20곳에 소음·진동법에 의한 공장폐쇄 명령을 내려 현재 심각한 대립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인쇄산업 육성계획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꼴이고, 이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도심 인쇄산업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쇄산업을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형 제조업으로 육성”(서울특별시, 2011.5)하려고 하는 서울시와 중구청장의 전략적인 문화관광적 도시개발계획과의 마찰은 산업생태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촉구한다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의 <산업생태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이나,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우리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산업생태계”는 주로 주요산업과 연관산업, 관련단체들이 형성하고 있는 경제적 클러스터 차원의 산업생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하여 ‘환경적 산업생

30

이창호,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677호 참조, 2013년 6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태학적 관점의 도입’이 절실하다. 청정생산이나 산업의 녹색화(최정석, 1999)는 특히 주거생활과 관련이 되어있는 도시형 제조업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구 필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은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발 마인드에 동요되지 않고, 도시형 제조업자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마련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서 일과 생활, 작업장과 주거생활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청정한 도심 산업마을 만들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1

연구의 요약

인쇄제조업은 문자와 이미지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과 내용이 매우 섬세할 수밖에 없다. 문자와 이미지를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모든 과정은 곧 일련의 시각화 과정으로 미려하고 정밀한 작업의 연속이다. 따라서 사고율이 매우 높다. 인쇄는 클라이언트, 편집자, 작업자 등 기본적으로 3개 집단의 참여·합의·통제 속에서 진행된다. 3개 집단의 합의가 깨질 경우, 인쇄물은 중도에라도 폐기되며 그 책임과 피해는 공정에 포함되어 사슬을 이루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뜻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크거나 연달아 일어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을지로 인쇄산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서울 중구청이 구의 휘장과 도시 브랜드의 내용으로 “서울의 중심, 중구”를 내세우고, “지리적 중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의 심장부에 있는 중구만의 정체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구의 인쇄산업은 지리적으로나 사회·경제·문화적으로나 ‘중심업무지구’라는 숲 속의 한복판에 박혀(embedded) 있는 “중심업무지구의 문화적이며 상징적인 작업을 위한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중구 인쇄 집적지는 처음부터 업무지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청 등 관공서, 기업 본사, 특급호텔, 금융업체, 그리고 충무로 극장가와 동대문과 남대문의 쇼핑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을지로를 따라서 80년대 말까지는 을지로 입구인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등지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개발에 밀리면서 을지로 3가, 4가, 필동, 방산시장, 그리고 동대문과 인접해 있는 오장동까지 밀리다가 현재는 장충동, 신당동의 남산 바로 밑까지 치고 올라가 있는 형국이다.

중구 인쇄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성격상 발주기관이나 원청업체의 상황에 연동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수시장의 변동에도 크게 좌우된다. 업종 자체가 가지고 이러한 성격과 함께 방대한 하청 사슬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가중되어 일거리와 결재, 수금 등이 상시적인 위험요소(risk)로 작용한다. 을지로 인쇄 제조업체들의 규모가 작고, 범위가 단품 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자체적인 기술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기계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만, 최신 디지털 장비나 프로그램은 수입 독점 판매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린다. 여기에 더해 수주산업의 성격상 기술 없이 인맥만 활용하는 ‘나까마’ 같은 무임승차자(free-rider)들이 활개치면서 이윤을 잠식하는 등 종사자들의 산업의지를 꺾고 있다.

2010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형 제조업 활성화 정책들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서 많은 의미 있는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정책 구상이 서울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서울시의 정책 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둘째, 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셋째, 각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와 안착 지원”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공동체’ 구축, 2) 지구 내 종사자들이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의 추진, 3) 임대 입주 중인 영세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지원” 등이 그것이다.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방법상에도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전환되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관심에 상응하는 정책 마인드와 실질적인 제도의 보완이 강구되어야 한다. 구상과 관리, 실행과 책임, 평가와 성과가 자체 완결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중구 을지로 인쇄산업지역은 다양한 권익단체와 친목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제조업 활성화 계획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문화협회, 서울·경기 인쇄 노동조합, 인쇄관련 종사자들의 클럽활동과 친목모임들)과 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쌓아온 자원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공동체” 및 “산업클러스터” 정책이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발적인 구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들을 인센티브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최근에 시행된 서울시의 고용지원사업이나 클린사업 등의 추진 과정을 보면, 서울시의 ‘구상’과 실질적인 ‘실행’ 사이의 간극은 구태에 가깝다.

연구의 시사점

2 1

가족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을지로 지역의 모든 인쇄 관련 업체들의 양상은 아니지만, 많은 영세업체들은 현재 가족노동에 기반을 둔 가족기업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부부간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다. 업체에 따라 2세대에게 기술과 경영을 상속하는 가족기업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기업화 추세에 따르는 맞춤형 활성화 정책과 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산업공동체가 현재 안고 있는 노동력 재생산 및 고용 창출의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제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인쇄·광고업은 전문성과 함께 고도의 노동 유연성에 의한 제품 생산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러한 유연성의 창출은 어느 정도 친밀성에 의존하고, 가족이 형성하고 있는 친밀성은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국내 노동력의 신규 진입이 거의 없고, 문화상품이라는 특성상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가족에 의한 기술과 경영의 승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2

도시형 제조업에 대한 DB 구축사업

서울시는 대략 2007년부터 시 차원에서 도시형 제조업에 대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책적 구상과 실행 계획은 그동안 꾸준히 검토되어온 것 같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기초조사가 병행된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도시형 제조업의 현황과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기초한 실사 차원의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형 제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DB 구축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

형 제조업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구의 설립이 중요하다.

2 3

사회적 자본의 효율성 제고

도시형 제조업의 활성화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구상이 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을지로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하향식의 정책 구상을 다양한 사회적 자본과 결합하여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개발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의 정책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각각의 하위 업종별(예를 들면, 코팅업, 제본업 등)로 구성되어 있는 소모임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한계와 애로사항, 정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시설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영세 소사장은, 협동조합 식의 산업조직을 만들어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4

주거 환경과 공존 가능한 청정한 인쇄 산업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구청과 을지로 인쇄업체 사이의 갈등은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 같다.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주거 환경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하며, 서민들의 삶과 생계의 터전이자 인쇄·광고 문화산업의 하부구조로서 산업공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고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청정한 산업 공간을 구상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만나 실태를 풀 듯 서로 조심스럽게 만나야 할 것 같다. 인터뷰에 응해준 많은 종사자가 일본의 사례를 말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도심 한복판에서 선진화된 인쇄문화와 인쇄 제조업을 개척해온 일본을 참조하여 ‘청정 인쇄산업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숙련공과 장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시스템 마련

을지로 인쇄 밀집지역에는 다양한 친목모임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협동조합, 문화협회, 기술협회 등이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것 같다.

이를 체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 관심과 뒷받침이 마련되어 숙련공의 형성 및 장인으로서의 직업적 커리어를 쌓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적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연대와 산학연대로 이루어지는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구상돼야 한다.

하청 사슬 체계에 대한 연구와 이에 기반을 둔 산업 클러스터 구상

을지로 일대의 인쇄 제조업은 ‘광범위한 하청 구조’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인쇄특화지구 지정과 정책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유한 특성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산업공동체’나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구상은 이러한 고유한 ‘하청 사슬 체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에 기초해야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다.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구로나 성수동, 파주나 일산 동구의 장항동으로 이동하지만, 이러한 업체들도 고정 거래처가 어떠한 이유로든 끊기게 되면, 다시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을지로’라는 산업 공간이다. 도시형 제조업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경제지리학적 변수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을지로 인쇄업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크고 작은 인쇄물들을 처리한다. 디자인 프리랜서, 영업 브로커, 강남과 홍대의 전문 기획업체, 지방, 일본과 미국의 교포사회 등 실로 다양한 곳에서 주문이 들어온다. 이러한 주문들이 들어오는 다양한 경로와 을지로 내부의 하청 사슬

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산업공동체와 산업클러스터를 현실에 맞게 구상할 수 있다. 서울시의 산학협력이나 민관협력에 대한 구상은 교수 몇 명, 공무원 몇 명, 종사자 몇 명 등과 같은 식이다. 돈의 집행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맡기거나 앵커시설에 지원하는 식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을지로 인쇄 제조업체들이 형성하고 있는 고유한 ‘하청 사슬 체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을지로 일대의 인쇄 제조업은 ‘지역적 종속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산업 클러스터’ 구상은 이러한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인쇄물의 종류는 문화의 진화와 다양성을 반영한다. 인쇄물에 대한 기법 또한 인간의 끊임없는 표현 욕구를 반영하며 발전한다. 기술 개발은 인쇄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며, 새로운 장비와 전문 기술자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쇄산업은 문화산업이면서 창조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걸어진다. 인쇄술은 단순히 책을 발간하는 데서 그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인쇄산업은 한 도시의 상징화 작업의 기수로서, 상업과 무역, 수출 등 도시의 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관여하며, 도시 자체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도시 산업(예 : Mice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하드웨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인쇄산업은 ‘도시’라는 브랜드에 ‘상표’를 붙이는 손과 발인 셈이다.

도시의 상업적이며 산업적인 속성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한 트렌드를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인쇄산업은 구상(편집 디자인)과 실행(다양한 공정 및 이에 수반하는 교정 작업의 연속 과정)을 담당하는 공정이 연계되어 있으면 유리하다. 실행 과정도 다양한 하청 사슬 체계 내부에 조직화되어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대도시와 도시인의 디자인에 대한 수요는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대량생산보다 다품종 소량의 생산방식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하는 생산 조직의 전문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를 공간적 지리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장소화도 필요하다.

증구 을지로 일대는 바로 이러한 도시형 산업의 노동유연성, 생산유연성에 입각한 유연전문화가 최적화되어 있는 산업공간이다. 즉 포스트 포디즘적인 산업공동체적 특성과 가치가 이 지역에 내포되어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에드워드 말레키·데보라 투틀, 1998, 「제13장 미국 중소제조업체의 네트워크」 「경제 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 박삼옥·주성재·남기범·황주성 편역, 한울.
-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공동체들」, 박성환 옮김, 나남.
- 난 린, 2008, 「사회자본」, 김동윤·오소현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로버트 D. 푸트남,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 외 역, 박영사.
- 박준, 2013, “독일 미텔슈탄트의 성공이 주는 교훈”,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 에밀 뒤크케임, 2012, 「사회분업론」, 민문홍 옮김, 아카넷.
- 캐슬린 셀렌, 2011,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신원철 옮김, 모티브북.
- 박삼옥, 2002, 「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제10장 「산업지구의 형성과 유형 및 역동성」.
- 금기용·반정화·김목한, 2013, 「서울시 우리 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 서울연구원.
- 최정석, 1999,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생태학」, 권태준 외, 「도시·지역과 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 강현수, 1999, 「유연적 생산체제와 지역변화」, 권태준 외, 「도시·지역과 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 Piore, Michael J. & Sabel, Caarles F.,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 possibilites for prosperity*, Basic Books.
- 이종구, 2007,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와 마치고바町工場」, 「일본공간」 창간호, 2007/05/vol.1, 논행
- 마이클 피오르 외, 2010, 「생산의 발전과 노동의 변화」, 강석재·이호창 역, 종원문화.
- 정병순, 2010, 「대도시 서울의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와 산업뉴타운」, 「산업입지」 2010 Summer Vol. 38,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퇴니에스, 1992,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배성동·황성동 역, 삼성출판사.
- 한상진, 2007,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의 산업 재구조화」, 한국학술정보(주).
- 김선배, 1998, 「기업간 네트워크의 형성현황과 요인 - 한국 컴퓨터산업을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지」 33(2), 309~324(16 pages) , 대한지리학회.
- Paul Knox & Steven Pinch, 2010, *Urban Social Geography : An Introduction 6th Edition*, Pearson Education Limited. pp30.(박경환, 류연택, 정현주, 이용균, 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제6판」, 총신그마프레스.

서울특별시, 2011, 「서울경제비전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2013, 2012년도 정책자료집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임기철 외, 2004, 「지역혁신체계의 거점형성 및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동주·권영섭 외, 2001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연구, 국토연구원

정병순, 2010, “대도시 서울의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와 산업뉴타운”, 「제38호 산업입지」,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연구소

http://www.seoulprinting.com	서울인쇄센터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http://ww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e-cluster.net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입지연구소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junggu.seoul.kr/junggu	서울특별시 중구청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www.spiic.or.kr	서울인쇄산업정보협동조합
http://www.print.or.kr	대한인쇄문화협회
http://www.kidd.co.kr	산업일보
http://junggu.newsk.com	중구신문

작은 연구 좋은 서울

2012

- | | | |
|----|---|-----|
| 01 |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 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 | 홍인옥 |
| 02 |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 남지현 |
| 03 | 서울의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 | 이원재 |
| 04 | 커뮤니티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문수 | |
| 05 |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마을형 주거복지연계방안 연구 | 이주원 |
| 06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사례 연구 | 임화진 |
| 07 | 문래예술공단 환경조형물 제작 생태계 조사 연구 | 김 강 |
| 08 |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 문진수 |
| 09 | 개미이웃 | 이유정 |

2013

- | | | |
|----|---|-----|
| 01 |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의 타당성 연구 | 김지연 |
| 02 |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 김준현 |
| 03 | 서울 학교 햇빛발전소 실태조사와 개선방향 연구 | 박규섭 |
| 04 | 서울시 문화공간의 담론적 구성 : 홍대 공간을 중심으로 | 김수아 |
| 05 | 서울시 사대문 안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기초 연구 | 이윤희 |
| 06 |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구조와 생활세계 연구 | 김봉렬 |
| 07 |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 이부영 |
| 08 |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인의 서울관광동향 분석 | 백리나 |
| 09 |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연구 :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성찬 |
| 10 | 도쿄는 어떻게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는가? | 이현석 |

서울연 2013-PR-24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구조와 생활세계 연구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3년 8월 18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비매품 ISBN 978-89-8052-562-1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